

6월호

충북 동향 전망대

Chungbuk
Trend Report



충북발전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동향분석센터

충북 동향 전망대

6월호 / Vol.1

Chungbuk Trend Report



충북발전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hungbuk

Trend

Report

목 차

제1부 주요 이슈분석

제2부 정책트렌드 풍양계

- 1. 충북 시·군 정책동향9
- 2. 정부기관 정책동향15
- 3. 연구기관 연구동향29
- 4. 타 시·도 동향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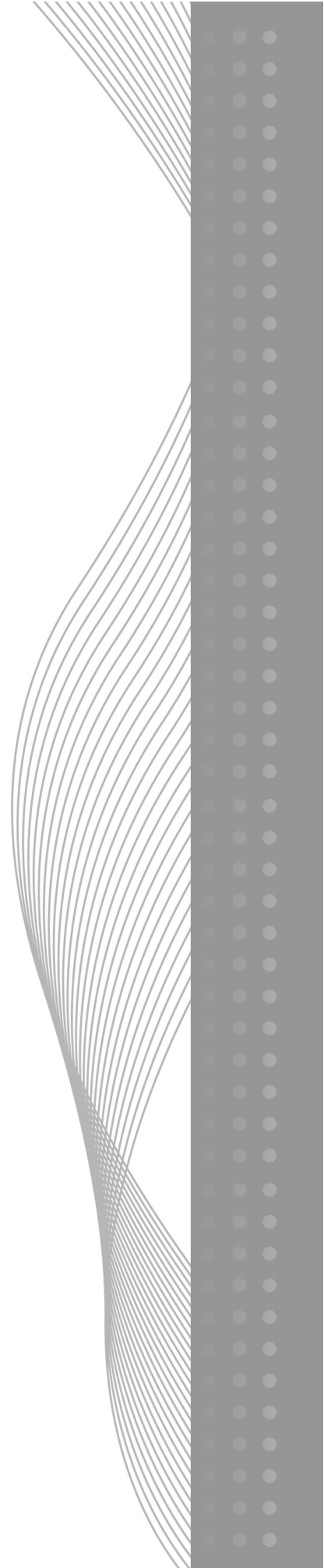
제3부 산업경제트렌드 풍양계

- 1. 충북 경제동향43
- 2. 국내 경제동향85
- 3. 국제 경제동향89

- 부록 : 1. 충북 경제일지
2. 충북주요 경제지표

제1부

▶ 주요 이슈분석



세계경제의 4대 불균형 및 시사점

■ 세계경제의 4대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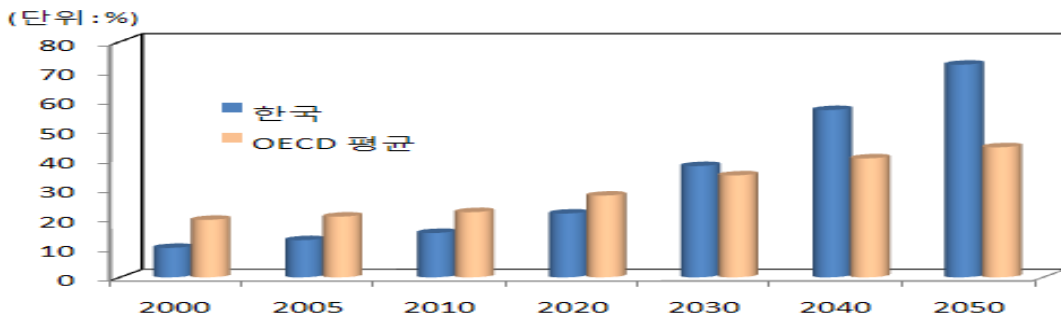
○ 글로벌 불균형

-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로 뚜렷이 대비되는 국가간·지역간 대외무역 불균형 현상
- 미국은 저금리 기조 및 자산가치 증대 등에 따른 과잉소비와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지속
- 중국 등 신흥국은 미흡한 사회안전망 등으로 인한 높은 저축률 및 낮은 소비로 인해 수출에 의존한 성장 지속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대규모 국채발행 등으로 인해 순대외자산 불균형은 지속 확대

○ 세대간 불균형

- 평균수명 연장,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로 발생하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수혜 및 부담 능력의 불균형 현상
-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연금 수요 증가 및 노인 부양비 상승 등으로 재정악화 및 세대간 갈등 초래 가능
-

[OECD 고령자 부양비율]



자료 : OECD Fact book (65세 이상인구비율/경제 활동인구(15-64))

- 세계 주요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재정 건전화에 위해 연금수급시기 연장과 정년연장 등의 개혁을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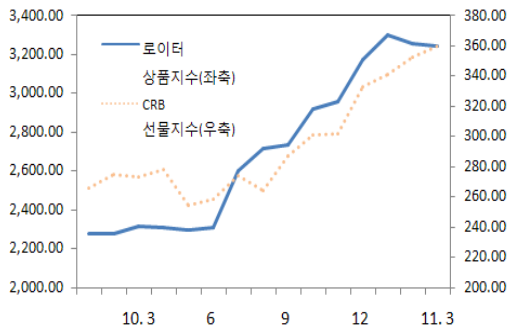
[각국의 정년 연장 계획]

국가	정년연령	조정계획
프랑스	60	향후 8년간 62세로 상향조정
독일	65	2012~2029 사이 67세로 조정 (상황에 따라 63세 은퇴 가능)
일본	60	남자 2001~2013, 여자 2006~2018 사이 65세로 조정 예정
미국	66	단계별로 67세로 조정(연금 수급연령, 법적 정년은 없음)

출처 : 英 Guardian紙,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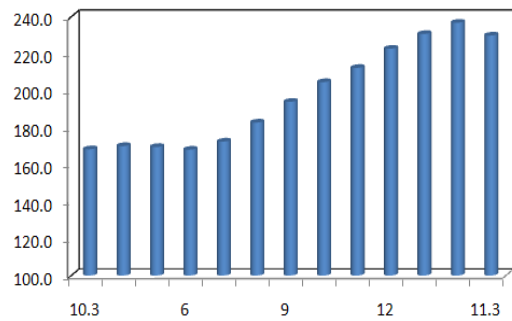
-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의 청년실업율이 악화('08.1분기 13.1% →'09.4분기 19.5%)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1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 최근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향후 신흥경제권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
 - 에너지·식품 등 필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개도국의 정정불안은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회복과 장기적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주요 상품가격 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식품가격 지수 추이]



자료 : FAO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품가격지수가 '11.2월 사상 최고치(236.8)를 기록하였으며, 이의 배경에는 수요·공급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수요 요인 : 신흥국의 생활여건 개선과 육류소비 증가 등에 따라 사료용 곡물 수요가 크게 증가
- 공급 요인 :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물 부족과 토양의 유기물 함량 감소에 따른 생산력 감소 및 경작지 감소 등으로 '11년 세계 곡물생산량이 2.0% 감소할 전망

- 국제금융 요인 : 각국의 저금리 정책 및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곡물 등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
 - 에너지 가격의 경우에도 최근 중동 정정불안 및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LNG 수요 증가, 양적완화로 인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의 투자자금 유입 등 단기적 요인은 물론, 세계 경제 회복과 신흥국의 빠른 성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이 지속 확대될 전망
- 국가간 개발 격차
- '08년 전년대비 10.2% 증가율을 기록한 DAC 회원국 정부개발원조 규모는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7%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원조규모 증가율이 크게 둔화
 - BRICs 등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성장과 G20 체제 출범 등으로 인한 신흥국의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절대 빈곤인구는 급증
 -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에 합의

■ 시사점

분야	대응방안
글로벌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을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우리나라는 대외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무역주의에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 • FTA 등 제도적 교역투자 기반 확충 및 글로벌 통상 체제변화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 필요
세대간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적인 개혁 개혁보다는, 노동·의료·연금시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혁방안 수립 및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 및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 •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 해소 및 과도한 예비적 저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전반적 점검 필요 - 복지체계에 대한 신뢰구축,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개발,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 구축 등
에너지·식량 수급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국 등 신흥국의 임금 및 물가오름세 확대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 • 유럽재정 위기, 중동 정정불안, 일본 원전사태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건인 인플레이션은 정책당국의 정책 운용 여지를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뉴딜정책, 탄소배출권 시장 성장, 개도국 식량 증산기반 구축 등을 위한 국제 공조를 지속 실천 • 편중된 수입선 다변화 등 원자재 구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 국제공조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적극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안보 측면에서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의 자급률 및 자주개발을 제고를 통한 수급 안정 및 비축확대의 지속 추진
국가간 개발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공정한 지구촌 달성에 기여 •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글로벌 기업 증가에 따라 민간부문 개발원조 (PDA: Private Development Assistance)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영국의 Economist紙는 향후 5년간 신흥국이 세계경제 성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신흥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신흥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의 체계적 수립·추진 - 녹색·IT·인프라·농업·산림 등 개도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

■ 충북의 대응방안

-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의 영향 파악 및 탄력적인 대응 모색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모니터링의 지속 실시
 - FTA 확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지역차원의 영향을 파악하고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지역에너지 수급정책의 전면적 점검과 절약실천 생활화 방안 적극 모색
- 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문제 해결의 공동대응체제 구축
 - 충북도 및 지자체의 교류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교류도시의 전략적 확대 통한 글로벌 문제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필요

제2부

정책트렌트 풍향계

1. 충북 시·군 정책동향
2. 정부기관 정책동향
3. 연구기관 정책동향
4. 타 시·도 동향

1. 충북 시·군 정책동향



청주시

■ LED 조명등으로 에너지소비↓, 탄소배출↓(5.26)

-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사 내 기존 형광등 300여개 LED 조명기구로 교체('11.6월부터)
- 주요내용 : ①사업비 9,500만원으로 조명사용 시간이 많은 부서부터 교체, ②연간 6.3t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기대 ③'13년까지 청사내 모든 전등 LED 교체 추진

■ 공무원 복장 간소화 시행 (5.23)

- 여름철에 실시해 온 복장 간소화* 조기 시행('11.5.23부터)
- * 복장 간소화 : 품위유지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특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노타이 와이셔츠, T셔츠 등 가볍고 단정한 차림을 명칭
- 복장 간소화 조기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연중 편안하고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는 방안 검토 중



충주시

■ 이웃 자치단체와의 축제교류 추진 (5.23)

- 이웃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에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등 상호 축제교류 추진 발표
- 음성군에서 '풍자와 해학, 사랑과 나눔'의 주제로 개최되는 음성품바축제('11.05.26~29)에 산하 공무원 80여명을 참여시켜 축제의 발전방향 모색 및 2011 충주세계무술축제 홍보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자로 선정 (5.09)

- 농식품부의 '11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충주 유기농쌀 가공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의 「충주유기쌀 가공식품 육성사업」이 최종 선정(11.05.04)
- 주요내용 : ①충주시와 4개 행정기관과 대학교 3개소, 연구소 3개소, 가공업체·농협·생산자단체 11개 등 17개 기관단체 참여 ②사업비는 국·도비 및 시비, 자담 등 50억원임
- * 유기농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사업 : 유기농쌀을 이용해 현재 빵의 원료로 사용되는 빵가루를 쌀로 대체하고 몸에 안 좋은 설탕을 몸에 좋은 유기농쌀로 조청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는 사업



제천시

■ 도서관 '기업 책바라지' 운영협약 체결 (5.04)

- 제천시립도서관은 제천시 독서문화 보급 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책바라지' 운영
- * 기업 책바라지 사업: '온갖 일을 돌보아 주는 일'을 의미하는 우리말 "바라지"란 말을 사용하여 기업의 독서를 이끌어 주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 독서운동
- 또한 충북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코레일 충북본부 제천역과도 운영 시기를 협의 중
- '지원 내용 : ①최초 400여권의 책을 대출해 주고 1~2개월 간격으로 도서 교체로 독서환경을 조성 ②해당 기업의 실정에 따라 대출 책 수와 기간 조정 가능



청원군

■ 청원생명농업체험열차 운영 (5.11)

- KTX오송역을 활용, 돈 되는 농업 육성을 위해 청원생명농업 체험열차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 ①'14년까지 수요에 따라 매달 2차레에서 4차레에 걸쳐 소비자와 대학교,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과 농산물 가공 체험, 먹을거리 체험 등 청원군내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교육과 주변 관광명소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②청원생명축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등 지역축제가 개최될 때 대도시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열차 운영 예정



보은군

■ '그린투어'로 농산물 판로 개척 (5.20)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그린투어' 실시
- 주요내용 : ①장안면 개안리 선병국 고가에서 보성선씨 영홍공파 21대 종부 김정옥씨(58)로부터 된장·간장 가르는 법 배우기 및 대추장류 직거래 ②속리산면 구병리 아름마을 찾아 산채류 및 손두부 맛 체험 ③표고버섯 수확체험 및 직거래, 삼년산성 둘레길 걷기와 대장간 체험으로 구성



옥천군

■ 전국 지자체 우수행정 벤치마킹 (5.23)

- 타 지자체 우수행정을 배우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선진행정을 분석·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보고듣고 체감할 수 있는 선진 지자체 견학 실시
- 주요내용 : ①군 실·과·소·사업소 읍·면사무소 25개 부서 중 19개 부서에서 팀별 4-5명으로 구성된 총 92명 견학 ②다양한 과제 및 자료를 수집하며 6월 말경 견학결과 발표회를 갖고 우수내용은 군정에 적극 적용할 방침

■ 도내 첫 사회적기업가 학교 5월부터 운영 (4.29)

- 충북도내 최초로 전문적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11.05부터)
- 주요내용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10회운영('11.05.24~07.19)
 - 교육과정 : ①개별 사회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 선정, ②워크숍을 통한 교육생들의 참여와 사회적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운영 사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③개별기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기업특성을 반영해 초빙 강사와 교육생과의 1대1 매칭을 통한 지속적인 자문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담임제 운영



영동군

■ 과일테마공원 조성 (5.19)

- '과일의 고장'인 충북 영동에 과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 조성
- 주요내용 : ①농식품부의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선정, 2015년까지 국비 등 65억원 지원 ②과일체험농장, 학습전시관, 야생화.분재원 등을 건립해 농민 교육과 도시민 체험·휴식공간 조성



진천군

■ '예술의 꽃' 활짝... 문화재단 설립 본격추진 (5.20)

- 진천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 추진
- 생겨진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문화재단의 필요성 : ①신규사업(도서관, 박물관)의 전문인력 충원과 종합관리 운영 ②지역문화예술의 역량 증진과 지역문화 경쟁력 고취 ③지역문화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 휴먼웨어(Humanware) 구축 ④지역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 ⑤지역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기반 조성을 들어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
 - 설립시 고려사항 : ①예산 및 전문 인력 확보 ②문화향유 및 발굴 ③단체간 협력 등
 - 구성 : 군수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15명 이내의 이사회, 전문가위원회, 감사, 사무국장을 두고 문화예술팀, 경영지원팀, 도서관, 박물관 등
- 향후, 군의회 보고한 뒤 문화재단 설립 지원조례 제정,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재단설립 승인신청, 설립허가, 설립 등기 순으로 추진 예정

■ 다우코닝, 충북 진천에 아시아 최초 태양광 응용기술센터 오픈 (5.18)

- 국내 및 글로벌태양광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다우코닝 태양광 응용기술센터(Dow Corning Solar Solutions Application Center)' 오픈
- 주요내용 : ①전 세계 태양광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고객들의 기술집약적 태양광모듈 상용화를 위한 개발 허브 구축 ②태양광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 소재 및 솔루션의 개발, 테스트 및 환경 변화도 측정 등을 실시



괴산군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뱅크 운영

- 농업인 노령화, 소규모 육모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 우량 건전 육모 생산, 공급을 위해 공급체계의 지속적 구축 및 지원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①'11. 4월부터 괴산군내 5개소에 24만 상자의 육모 생산 ②괴산군 벼 식재면적 3,520ha 중 966ha면적의 모내기 가능(전체면적의 28%) ③모판흙, 육묘상자 등 지원



음성군

■ 물가안정 업소 인센티브 제공 (5.4)

- 가격이 저렴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우수한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 12개소*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 주요내용 : ①모범업소 애용운동 전개 등 행정적인 지원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의 지속적 확산 ②사후 관리 강화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분위기를 적극적 선도
- * 물가안정 모범업소 : 음성읍 2개소, 금왕읍 2개소, 대소면 2개소, 맹동, 감곡, 원남, 소이, 삼성, 생극면 등 12개소임



단양군

■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 (5.15)

-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국민 통합 수련의 장이 될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12년 말 완료 예정)
- 주요예정 : ①국비 등 150억원으로 수련원, 교육관, 체험관, 운동장, 휴식공간, 소백산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 ②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가 운영하며 템플스테이, 불교체험 및 문화·교육사업 등 제공 예정

증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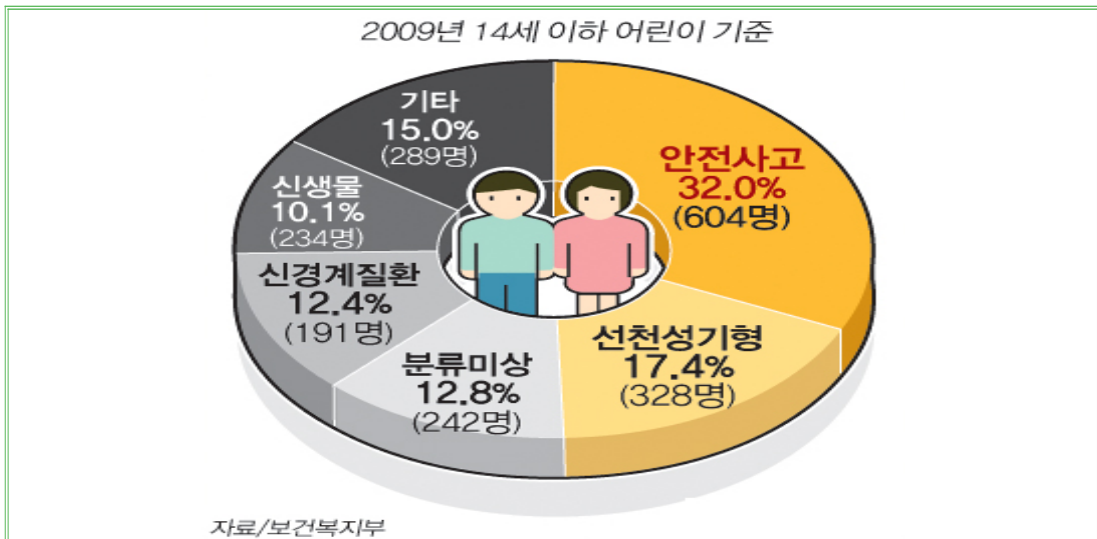
전국 첫 주민소득사업 골프장 개장 (5.17)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소득사업으로 대중골프장(파3·9홀)이 전국 최초로 개장
- 주요내용 : ①4만5488㎡ 부지에는 퍼팅연습장을 포함해 그린 10곳과 스윙연습장 6타석, 폰트 1곳, 홀 연장길이 842m(최대길이 170m), 조명탑 7곳, 주차대수 52면(장애인 2면), 클럽하우스 등으로 구성 ②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 소득 증대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37억 원 투자, '10년 10월 말 준공

증평자전거거점도시사업 6월 본격 착공 (5.13)

- 전국 군단위로선 유일하게 추진하는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 본격 추진('11.06월 착공, '12.12월 완료)
- 주요내용 : ①11개 노선 11km 구간을 대상으로 자전거의 인프라·안전·문화 등 종합적 자전거 이용 기반을 갖춘 명품 자전거도시 육성 ②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및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전거시험기관 지정, 지자체 자전거보험 시행,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설치 등을 연차별로 추진

한눈에 보는 어린이 사망 주요 원인(복지부)



2. 정부기관 정책동향



행안부

■ 주택 취득세 50%감면 관련 개정법안 국회통과 (5.2)

-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11.04.29)
- 주요내용 : '11.0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

구분	기존		변경	
감면 시한	'11.1. 1 ~ '11.12.31		'11.3.22 ~ '11.12.31	
감면 주택	9억원이하 1주택인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모든 유상거래*	
적용 세율	9억이하1주택	2%	9억이하1주택	1%
	9억초과, 다주택	4%	9억초과, 다주택	2%

■ 지방공기업 사업타당성 검증 및 부채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5.4)

- 지방공기업 선진화 확산 위해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 개최,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 발표('11.05.04)

과제	내용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의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 의무화 • 타당성조사 결과는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이 엄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사시 부적절한 현물출자 등 출자재산의 요건 확인, 사업타당성 검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채 승인 이후에도 정기(반기별)적으로 확인 실시 •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한도 축소(순자산 10배 이내 → 순자산의 6배 이내)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지 영업수지 비율 및 부채비율의 반영비중 확대 • 최하위 등급 평가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
개별 지방공기업별 경영개선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공기업별 경영개선방안 마련 및 자산매각 및 손실 최소화 등 경영개선 추진

■ 지방인사 공정성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시 (5.17)

-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마련·입법예고 (‘11.05.17~06.07)
- 주요내용 : ①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 풀(Pool)제 도입,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 마련, 안전심의회 있어 대면(對面)심의 원칙 등 개선 ②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선 ③다문화 가정의 귀화국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직 임용 기회 확대 등 추진

■ 행안부-지자체 손잡고 지역브랜드의 세계화 사업 강화 추진 (5.19)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업무의 활성화 및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담당관 워크숍’ 개최
- 주요내용 : ①‘ODA 선진화 방안’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등의 발표를 통한 중복·낭비·전시성 국제협력 사업 지양 및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ODA사업의 선진화 공감대 형성 ②지자체별 특화분야를 발굴 및 세계화 지원, ③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자매결연, 해외 자원봉사 등 기존 협력사업 확대 등



■ 한계돌파형 에너지 미래 R&D 착수 (5.4)

- 10년간 최대 2200억원이 지원되는 에너지 미래기술 R&D 과제 공고
 - 7월 5일까지 과제 접수, 사업자 선정 평가 후 9월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 착수 계획
 - 에너지 미래기술 프로젝트 : 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규 R&D 사업
- 주요내용 : ①선정된 과제는 원천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10년간 전주기적으로 지원 ②단계별 평가·탈락을 통해 기술개발효과 극대화에 중점 ③확보한 기술은 중소·중견 기업에 이전하여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선정된 과제

분야	에너지미래기술
에너지저장	① 마그네슘 전지, ② 금속-공기전지, ③ LIB 고체전해질
기술융합	④ 신 열전물질 개발
공정효율	⑤ 혁신적 철강냉각기술개발
자 원	⑥ SIP기반의 황화광물 탐사기술개발
태 양 광	⑦ 양자점 고효율 태양전지
풍 력	⑧ 부유식 풍력 Substructure/Platform 기반 기술개발
연료전지	⑨ 직접탄소연료전지, ⑩ 열화구조 분석 및 내구성 향상기술

■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갈 대표기업 본격 육성 (5.4)

- 우수한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초기 팹리스 기업을 발굴·집중 지원하는 ‘Star Fabless 10 프로젝트(‘11~‘15, 1단계는 ‘13년 까지)’ 발표
 - 5.20일까지 신청 접수, SF경진대회 및 평가를 거쳐 6월중 4~5개 기업 선정 예정
 - 지원내용

분야	지원내용	지원기관
기술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3년간 총 개발비의 75%범위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11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스타팹리스시스템반도체세계화개발사업”으로 지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창업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2년내 기업은 창업 보육 공간 제공 - 사무실 무상 임대 제공(2년 까지)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설계환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설계 및 검증에 필요한 EDA Tool 지원 - 기업당 6백만원/년 내외 지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시제품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칩 상용화 시제품 제작 및 IP 지원 - 총 비용의 50%범위내 지원(기업당 3.5억원내)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인력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활용 지원 - ETRI 소속 연구인력 파견지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투자·운영·해외 마케팅 등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반도체펀드 우선지원 검토 대상으로 편입 	반도체펀드 운영위원회
글로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지원 - KOTRA의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사업 지원 - 기업당 3백만원/년 내외 지원 	KOTRA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유통 지원 - 제품 설계에 필요한 IP 및 연구 결과물 IP를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에 등록 지원 	특허청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센터)

· 선정요건

평가항목		내용
기업성 장전략	시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시장 경쟁 환경과 시장규모 분석의 객관성, 구체성 및 종합성 주력시장 경쟁 환경과 시장규모 고려시 향후 성장성 시장확대 조직 및 인력의 우수성 외부 네트워크 등 기타 시장확대 역량 시장확대 목표의 명확성과 달성 가능성 시장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등
	경영혁신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확보 현황 및 문제 분석의 구체성과 종합성 인력 확보 전략의 구체성과 타당성 인력 확보를 위한 자기 노력의 적극성 조직운영 리스크 분석의 구체성과 종합성 등
기술개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제품 기술현황 조사·분석의 객관성, 구체성 및 종합성 CTO 및 연구팀의 우수성 시설, 환경 등 연구역량 기술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역량 주력제품 관련 핵심기술 보유 수준 기술확보 목표의 명확성, 적정성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 노력의 적극성 등

* 스타랩리스(Star Fables) 기업 : 창업 1년부터 7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향후 핵심 기술개발·표준 선점 등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개발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R&D 미경험 기업 대상, ‘첫걸음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 (5.6)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정부 R&D 사업 경험이 없고, 매출액 규모가 100억원 이하의 부품·소재 중소기업(소규모기업 우선 지원)
- 예산 및 기간 : 업체당 연 1~3억원, 2~3년간 지원
- 사업체계 : 과제발굴·지원과 평가주체 이원화로 효과성 제고
 - 사업평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전담, 기술력있는 유망한 부품·소재 중소기업 발굴에 주력
 - 과제발굴 및 사후점검·사업화 지원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하여 사업성공 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분야	내용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사업계획서 단순화 및 작성방법 지원 사업계획서를 재무구조, 기술성 등 핵심적 요소로만 구성, 현행 100페이지 → 30페이지 내외로 대폭 간소화 '1인 컨설턴트'를 지정·운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R&D평가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및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발표평가'와 '현장실사' 병행 경영자 면담, 공장실사 등을 통해 회사 역량과 경영방침 리더십 기술과제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 부품·소재 중소기업도 유망하고 차별화된 기술력만 있으면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의무화 면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적인 부품·소재 중소기업 홍보체계 구축 현지 밀착형 사업설명회 개최 및 개별 업체 대상 이메일 서비스 제공을 통한 R&D 사업 정보 확산 도모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사업에 대한 연간 추진계획을 담은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계획서' 발간

○ 또한 '첫걸음 부품·소재 R&D 지원단' 구성·운영

- 중소기업의 R&D 과제 발굴 등을 지원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해상풍력·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 분야, 글로벌 파워엘리트 육성 (5.9)

○ 에너지산업의 인력 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1년도 에너지 인력양성 신규 지원사업' 공고('11.05.09)

- 지원 분야 및 지원 내역

프로그램 구분	지원분야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 에너지 효율향상, 기후변화 대응	9개 내외	•연 3억원 이내 •최장 4년(2+2)
	• 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미래선도 인력양성 (GET-Future)	• Post LIB 화학전지 기술	3개	•연 10억원 이내 (1단계:2억원 이내) •최장 10년(1+3+3+3)
	• 해상풍력 기술	3개	
에너지정책연계/융복합 트랙	• 에너지 효율향상, 기후변화 대응	12개 내외	•연 5억원 이내 •최장 5년(2+3)
	• 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 기술정책국제협력		
산업전문 인력양성센터	• 전력산업 분야	1개	•연 10억원 내외 •최장 5년(2+3)
	• 원자력산업 분야	1개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 원자력분야를 제외한 에너지산업 전분야	1개	•연 9억원 이내 •최장 5년(2+3)
해외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우수대학(The Times선정 우수대학 200위권)의 대학원 신규입학 허가를 받은 자 - 전력/원자력/신재생 분야 	20명 내외	•인당 연 3천만원 이내 •최장 2년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서, 프로그램별 해당 기관
- 접수기간

프로그램 구분	전산접수	서류접수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GET-Future),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11. 6. 8(수) 18:00까지	‘11. 6. 9(목) 18:00까지
해외장학	‘11. 6. 29(수) 18:00까지	‘11. 6. 30(목) 18:00까지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11. 7. 27(수) 18:00까지	‘11. 7. 28(목) 18:00까지

■ 녹색인증 대상 확대로 녹색산업 성장 지원 가속화 (5.17)

-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규정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0.4.14 제정) 개정 고시(11.05.17)
- 주요내용

분야		내용
녹색기술	인증대상	• (현행) 10대 61개 중점분야 1,263개 핵심(요소)기술 → (개정안) 10대 85개 중점분야 1,745개 핵심(요소)기술
	기술수준	• 현행 최고기술대비 70% 수준 유지하되, 도입기 기술 등 과소인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종업계 상위 30% 수준* 적용
녹색사업	인증대상	• (현행) 9대 95개 사업 → (개정안) 9대 105개 사업
	신청요건	• (현행) 녹색프로젝트 → (개정안) 녹색설비투자까지 확대
인증평가기준	녹색기술 평가기준	• (현행) 기술성장성·녹색성 등 3대 평가항목, 7개 세부지표 → (개정안) 기술(우수)성, 녹색성 2대 평가항목, 5개 세부지표
	녹색사업 평가기준	• 3대 평가항목(기술활용성·환경개선효과·사업타당성) 중 사업타당성 항목을 정책합성 항목으로 변경

- 금융권, 녹색인증 대상 여신전용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시 녹색인증(확인) 신청과 연계
- ‘11.6월, 전용시스템 개발 ⇒ ’11.하반기, 금융회사 보급 및 운용(전담인력 지정 등)

■ 신재생에너지 기업지원 거점(테스트베드) 6곳 선정 (5.17)

-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6곳 선정·발표
 - 선정된 6개 테스트베드
 - ①태양광(3) : 충청권(충북TP), 대경권(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호남권(전북대-광주생산기술연구원)
 - ②풍력(2) : 풍력시스템-호남권(전남TP), 풍력부품-동남권(경남TP-부산TP)
 - ③연료전지(1) : 대경권(포항공대)
 - 지원내용 : ①3년간('11년~'13년) 총 480억원 지원 ②정부지원은 장비·공용설비·인프라 등의 설비구축비에 한정, 부지·건물·운영비 등은 지자체 및 주관기관이 부담
 -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시험분석·성능검사·신뢰성 검증·실증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집적화한 사업화 지원 거점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5.6)

○ 주요내용

과제	세부내용
축산업 허가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등록제의 전 농가 확대적용, 그중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12년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12~'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7가지 유형(A, C, O, Asial, SAT1, 2, 3 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미접종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 -의사환축 확인시 : “주의”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농식품부, 검역원, 해당 지자체 등에서는 상황실 설치 준비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 단계별 대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 바로 “심각” 단계로 격상발령,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백신비용 분담 -부과대상 : 전업규모 이상 소·돼지 농가 -분담비율 : 국비 50%, 자담 50% • '12년부터 지자체에 매몰보상금 분담

<p>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담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도 10%, 군 10%) -발생상황 및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몰보상금이 일정규모(예 10억원) 이상 초과시 지원 방안 강구 •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 마련 -해외여행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조치사항 미이행 : 80% 감액 -방역의무 미이행 : 위반 항목 수에 따라 20~60% 감액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은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 감액
<p>방역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방역기관 : 농림수산물부 방역관리과 신설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가칭) 설립 • 지방 방역기관 :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인력 확충 -사도 가축방역기관 : 사육 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예찰, 질병 진단·검진, 혈청검사, 농가교육 등) 기준 마련 • 시군구 가축방역부서 : 농가 호수별 필요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 및 조직(축산계 방역계) 보강
<p>기타 제도개선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2012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축산법 개정)

■ 농어촌관광사업 평가 및 등급제 도입, 업무 지방이양 (5.12)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1.5.16~6.7)
- 주요내용 : ①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농어촌관광사업의 운영실태 평가 및 등급제 도입 ②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업무와 인증의 취소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및 홍보 및 조사·연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도 수행 가능



■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5.13)

- LH본사의 경남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 및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혁신도시로 재배치 결과 발표
- 일괄이전 타당성 : ①분산배치는 '09.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LH 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중복 건축, 출장비용 등 유무형의 비용 발생 ② LH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③분산배치로 인한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 전략 우려



복지부

■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 보건의료 R&D HT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 (5.13)

- ‘미래신성장동력 HT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 및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HT(Health Technology) 포럼 개최
 - * HT(Health Technology) :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할 뿐 아니라 환자의 재활, 관리,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로 의료기기, 의약품, 내외과적 의료행위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지식을 포함
- 발표내용 : ①HT R&D 추진현황 ②HT R&D 의료인의 역할 ③HT 발전을 위한 의과학자 양성방안 등



고용부

■ 일·가정 양립 촉진 위해 휴가·휴직제도 개선 (고용부, 5.1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11.05.13)

개정안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확대(무급 3일 → 유급 3일+무급 2일) •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통한 육아 휴직 활용 저해 요인 제거 및 활용 촉진 •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 만 거부할 수 있도록 가족간호휴직제도 강화 • ‘산전후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



■ 의약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 개소 (5.19)

- 국내 신약개발 패러다임 혁신 및 한국형 신약 개발의 모델을 구축하고 신약개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 개소('11.05.20)
- 주요내용
 - ①지원규모 : ㉠예산: 162,000백만원(정부: 155,500백만원, 지자체: 6,500백만원) ㉡사업기간: 2010.10~2019.08(9년)
 - ②연구내용 : ㉠약물설계, 타겟발굴검증, 약물검색, 생체질병모사 등 4개 핵심 기술 연구와 중앙연계실용화사업을 통하여 생체 내 질환의 현상과 메커니즘을 최대한 구현한 원천 기술 개발 ㉡대형 인프라 및 고가장비 확보, 대용량 라이브러리 구축, 신규사업 발굴 및 연구 난제 해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발표 (5.16)

- 과학벨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11.05.16) 및 최종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단지) 내 신동·둔곡 지구 선정 발표
- 주요내용 : ①거점지구인 대덕단지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 조성 ②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기능지구는 청원(오송·오창), 연기(세종시), 천안으로 확정 ③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연구단은 거점지구인 대덕단지와 광주, 경북권(대구·울산 포함)을 중심으로 배치 예정 ④ 예산 : 5조 2천억
- 입지 결정 관련, 타 시도 동향
 - 경북권 : 경북도, 울산시와 대구시는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백지화 요구(행정 소송 제기, 원전·방폐장 중단 요구)
 - 포항시 : 규탄대회 및 선정 경위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등 반발
 - 광주시 : 강운태 시장, "과학벨트 선정 원천무효..재심사" 촉구
 - 창원시 :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 입지 선정 결과 존중 발표
 - 충 남 :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나,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신의없는 국정운영 및 불신, 지역갈등 자초에 대한 사과와 반성 촉구 주장



교과부·복지부

■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5.2)

-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 시행 발표(‘12.03월부터)
- 주요내용 : ①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②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③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만5세아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
- * 5세 공통과정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

■ 헬스산업 공동수출 협력 (5.6)

-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HT 산업 글로벌진출 지원협의회’를 개최(‘11.05.06) 하고 헬스산업의 글로벌 지원 전략 발표를 통해 내수 중심인 국내 HT*산업의 수출 산업 전환을 강력 추진 발표
- * HT(Health Technology)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민 건강관련 산업
 -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중기청, 특허청, 식약청은 HT 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상호공조 강화의 MOU체결
- 글로벌 진출방향
 - 단기 : 아시아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과 북미 등 선진국에 차별화된 시장공략 추진
 - 장기 : 고품질 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국제협력, 인프라선진화, 인력양성 등 역점
- 발전전략

실천과제		
단기	총력 수출지원 체계 구축	· 헬스(HT)산업 글로벌진출 지원협의회
		· 원스톱 정보지원 포털
	상용화금융지원	· 제작금융, 포괄수출금융, 시설재수입자금, 해외투자자금 등
		· 수출신용보증, 해외투자보험,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 콜럼버스 프로젝트 글로벌펀드 조성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 중소기업 수출정책자금 융자 지원	

단기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확대	· 고위급채널을 통한 민간 실무협의회 구성
		· 콜럼부스 프로젝트 민간 시장진출 추진단
		· 수출로드쇼, 설명회, 코트라 자가브랜드 수출지원사업 등
		· 의료산업포털사이트, 코트라 Medi-Star Initiative
		·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 중소기업 해외진출 마케팅인프라
	수출금융 지원 대폭강화	·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컨설팅
		· c-GMP 교육, 모의실사 지원
		· 의약품 해외 규제당국과의 규제협력
		· 해외의약품 등록 실무 교육
장기	기술개발	· 맞춤형 의료-바이오 커넥트 센터(BMCC)
		· 연구중심병원육성 법적근거마련, 한시적비급여 적용
		· 미래디자인 의료기기 R&D기획
		· 기술획득전략지원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 지재권컨설팅, 국제소송비용부담, IP-DESK
		· 인간유전체연구사업, 줄기세포치료·바이오장기개발
		· 차세대 생명정보 활용 유전체 연구및 상용화
		· 의료기기 25대 전략품목 개발
		· 양부처 공동 전주기 의료기기 기술개발 추진
		· IT융복합 국제표준개발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 천연물신약개발, 바이오시밀러 공통기반기술
	· 화장품신소재융합기술, 미래유망화장품 R&D	
	글로벌 국제협력	· PIC/S 가입 추진
		· ODA 사업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
		· Korea HT Excellence 브랜드 제고
		· 국제협력 R&D사업 확대
	인프라 선진화	· CRO활용 지원 사업
		· 의료기기 국제표준 대응 시험인증능력제고
		· 의료기기 신뢰성 시험지원센터
· 의료기기 국제시험인증지원센터 구축 지원		
인력양성	· c-GMP 생산시설, KBCC, 글로벌 코스메틱산업단지	
	· 마이스터고, 바이오폴리텍대학, 바이오특성화대학원	
	· 바이오화장품 GMP, 바이오융합기술과정	
	· 임상시험전문가를 위한 의료기기 스폰서 과정	
		·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



■ 기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지원 (5.20)

- 중소기업의 기술 융·복합의 성과창출 및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융·복합지원센터’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11.05.23~06.22)
- 주요내용
 - ①지원규모 및 조건 : ㉠선정규모: 권역별* 센터 7~8개소 ㉡지원조건: 센터당 최고 3억원/년 이내 지원(100% 출연지원)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②지원내용 : ㉠융·복합 R&D기획 멘토링 그룹* 결성 및 융·복합 R&D기획 ㉡기술 융·복합 교류회 운영 ㉢기술 융·복합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기술 융·복합 교육 ㉤기타 특화된 서비스 등
 - ③신청자격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
- * 권역: 경인권(서울·인천), 경기·강원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부산·울산권, 경남권
- * 융·복합 R&D기획 멘토링 그룹: 융·복합기술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주관기업에게 지원센터가 멘토가 되어 ㉠파트너 기업 매칭을 통한 기술 융·복합협력체구성 ㉡고객니즈에 기반한 기술 융·복합화 ㉢융·복합 R&D 방향 및 방법수립 ㉣기술적 타당성 및 사업성분석 등 융·복합 R&D기획을 지원하고 향후 R&D·사업화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관리
- 추후 ‘11. 07월 중 평가하여 ‘11.08월 중 선정 및 협약체결 예정

한눈에 보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정책 (교과부, 복지부)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전 · 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교육·보육과정	유치원 교육 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지원 단가	공립유치원 (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관리 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세 공통과정
	전 계층으로 확대(100%)
	표준화된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공립유치원 (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16년 월 3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현행 유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3. 연구기관 정책동향



■ 서비스산업 혁신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4.29)

- 배경
 - 경제의 서비스화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의 혁신 강화, 중간재 산업으로서의 서비스산업의 역할 확대,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등이 필요
 - 이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
- 분석결과
 -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자체 연구개발 활동과 여타산업으로부터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의존
 -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혁신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체제,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을 강화 필요
 - 정보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여타 서비스업들에 비해 연구개발집약도와 IT 등 신기술 활용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 매우 미흡
 - 혁신활동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시장 내 경쟁시스템의 도입과 지식집약서비스의 질적 고도화가 더욱 중요
- 시사점
 -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동 강화 및 IT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체제 강화 및 신기술 활용 촉진 위한 지원제도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생산성 향상이 매우 부진한 정보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시장 내 경쟁시스템의 도입 및 강화, 지식집약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등이 요구
 - FTA를 국내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
 - 서비스업종 간의 칸막이식 보호 지양 및 전문자격사제도의 획기적 개혁 필요
 - 지식집약서비스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전문업, 에너지절약전문업, SW개발업, 해외자원개발업, 녹색성장 관련 리스서비스업 등 유망 서비스업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 강화
 - 생산자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통신수요 확대 가능성 적극 활용 및 개도국 관련 CDM사업 등 에너지절약 또는 탄소저감과 관련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IT서비스의 해외진출 촉진 필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중국관광객 유지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05)

- 세계관광의 전망과 중국의 위상
 - 세계관광기구(UNWTO),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소비의 고급화, 개방정책 확대에 의해 해외관광객 수가 급증하여 2010년 약 6천만 명, 2020년 약 1억 명을 송출하는 세계 4위의 송출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개방화국제화 및 내수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중국인의 해외여행 전면자유화가 예상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전망
- 중국관광객 방한 현황과 수요예측
 - 중국관광객 실태조사 종합 : ①개별여행 관광객의 높은 비율 ②쇼핑을 목적으로 한 중국관광객 증가 추세 ③순수관광목적 및 4회 이상 재방문 관광객의 증가 ④방문 목적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인천 지역 집중 현상 ⑤방한 중국관광객의 질적·양적 변화 높음 ⑥ 관광형태간 선호도 차별성 뚜렷
- 중국관광객 수용태세 추진현황과 문제점
 - 중국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관광협회 등 민간부문이 주축이 되어 중국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각 지자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용태세 개선노력이 병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 부산, 제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체계적인 수용태세 개선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사점 및 과제
 - 중국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의 방향 설정 : ①방한 중국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 제고 ②관광 기초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③민·관 협력형 관광수용태세 구축 ④지역 관광수용태세의 국제화 모색 ⑤우수 관광상품 개발 및 현대서비스 혁신
 - 단기(2011-2012) 관광수용태세 개선 7대과제 : ①중국인 단체관광 공정거래제도 도입 ②중국인 선호 관광숙박시설 확충 ③개별여행의 활성화(비자/교통시설 개선) ④중국인 전용식당 지정 및 서비스 혁신 ⑤ 단체여행상품의 쇼핑강요제도 개선 ⑥중국어 관광정보 및 안내 혁신 ⑦중국 관광객수용태세 평가 및 재정지원
 - 중장기(2013-2020) 관광수용태세 개선 7대과제 : ①한국신기(韓國神奇)형 관광명품

개발 ②한류체험형 복합숙박시설의 도입 ③항만이용 관광활성화 및 출입국여건 개선
 ④음식업 겸 여행업의 복합사업 제도 도입 ⑤한국관광 쇼핑거리지정 및 육성 ⑥스마트형
 관광 정보기술의 제공 ⑦중국관광객 유치거점지구 선정·지원

STePI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5.17)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는 자원과 역량이 집적된 광역경제권의 혁신역량이 전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짐
 - 우리 정부는 지역혁신체제를 광역경제권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중심, 규모화,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 경쟁력과 잠재력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R&D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성과평가를 통한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움
 -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의존도가 높고 지자체 참여기회의 한계 존재
 - 비교우위에 따른 특성화, 차별화를 추구하기에는 지역 여건 반영이 미흡
 - 광역경제권 단위로 규모화하기에는 부처 간, 사업 간, 지역 간 연계 미흡
- 해외 주요국의 지역정책 추진체계

국가	추진체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과 재정개혁 추진 · 각 중앙부처의 지역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추진체계 정비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역개발저택 추진체계 정비 · 지역단위의 통합적 예산운영시스템 확대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 중앙부처 성격의 총괄 기획·집행기구인 지역경쟁력청을 통해 각 중앙부처의 지역사업을 종합조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프로그램의 통·폐합 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의 구체화, 타 프로그램과의 조정과 협력 강화,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 추진의 통합성 증진

○ 중점 추진과제

과제	세부내용
지역 R&D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분담에 따라 “지역 R&D” 정의 및 “지역별 R&D 활동”을 보조지표로 활용 지역 R&D는 지역자체의, 지역에 의해 기획된, 지역을 위해 마련된 R&D 사업으로 개념 정립하고 “지자체 R&D + 지자체 자율기획(중앙정부 매칭) R&D + 광특회계 R&D”로 정의
지방 R&D 자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 R&D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지원(지방소비세 확대 등) 양여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
지역 R&D사업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 반영이 용이한 광특회계 사업의 비중 확대 지자체 주도의 자율기획 신규 추진 지역 R&D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조정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지역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광역단위에 중앙정부 사무소 설치 지역수요 반영 확대를 위해 지역 기획기능 강화 지원



■ 주요국 외국인력 정책비교 및 시사점 (5.3)

○ 국가별 단순노동 외국인력 정책 비교

분야	내용
제도와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기 단순근로자를 도입하고 고용부담금제를 실시 독일, 한국 : 조건을 충족하는 단순근로자에 한해 일부업종에서 고용허가제 실시 일본 : 외국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외국인연수생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회적·계절적으로 단기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단기근로자는 최대 1년간만 근로할 수 있음 독일 : 13개 동유럽 국가들이 쌍무협정을 맺어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 최대 3년까지 고용 계약이 인정됨 한국 : 쌍무협정을 통해 아시아 15개국으로부터 외국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최장 3년까지 취업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방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 쿼터제, 노동시장테스트, 내외국인 차별금지 조항 및 고용부담금제를 적용 독일, 한국 :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를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하고 노동시장테스트 및 내외국인 차별금지 조항 적용함 일본 : 해외 일본인 동포인 니케진에게만 취업의 자유를 허용하여 내국인 노동시장을 극단적으로 보호함

불법체류자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불법체류자와 관련자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자진 귀국프로그램 합법화 등을 병행하고 있음 • 독일 : 불법체류자의 고용주를 주요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 • 한국 : 불법체류자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제도를 갖추고 있음 • 일본 : 자진귀국 가능성이 높은 연수생을 선별 도입하여 불법체류를 억제
-----------	--

○ 시사점

- 외국인 산업인력제도 정착 가속화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하한선 설정을 통해 합당한 보수지급 제도화
 -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국내 고용시장 위축 방지 강화
 - 내국인 고용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고용부담금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함
 - 징수된 고용부담금으로는 내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 사업장 관리감독 등 활용
- 불법체류자 발생 억제 조치 마련
 - 외국인 근로자 선발시 자진귀국 가능성이 높은 인력으로 우선 선발
 -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 보완
 - 불법체류자라도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제도 마련
 - 자녀가 있는 불법체류자 가정은 일정 수준의 교육, 의료, 복지 혜택 부여
 - 불법체류자의 단속취환조치에 있어 본인의 의지를 존중한 선택권 제시

■ 주거복지 평가와 개선방안: 주거비용 증가로 주거복지 개선 속도 둔화 (5.13)

○ 주거복지의 개요

- 주거복지 :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
- 정책수단 : 주거급여 제공, 전세자금 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임대주택 건설, 기존 주택의 매입 임대, 전세주택 임대 등의 수단으로 활용

○ 주거복지 현황과 문제점

- 주택공급, 주거환경, 주거비용 등 3가지 차원에서 검토 결과, 1995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최근 전세가격의 상승 추이로 주거비용 측면의 상황 악화
- 주택공급 측면 : 주택보급률은 110%에 근접하나, 장기 공공임대 주택 재고율(4.1%)과 천명당 주택수(286호)는 선진국 수준(15%, 450호)에 크게 못미침
- 주거환경 측면 : 가구당 사용방수(3.7개)와 인당 주거면적(24.7㎡) 등 주거밀도와 전용 편의시설(95% 내외)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10.5%)도 1995년보다 크게 개선
- 주거비용 측면 : 주거급여 제공(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20.65%를 정률로 지급)과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비용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으나, 최근 전세가격과 금리의 상승으로 소득대비가격비율이 7.7배까지 높아져 주택관련 시장 상황 악화

○ 주거복지에 대한 종합평가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수단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주거복지지수 도입
- 공급지표(4개, 30%), 환경지표(4개, 40%), 비용지표(3개, 30%)로 구성
- 지표 구성 : ①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재고, 주택보급률, 자기점유율, 천명당 주택수, ②주거환경: 가구당 방수, 주거면적, 온수 목욕시설, 최저주거기준, ③주거비용 : 소득대비 가격, 소득대비 임대료, 평균 대출금리
- 1995년을 기준(100)으로 2008년 124.9로 높아졌으나, 주거비용 지표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을 반영하여 2008년 94.9로 후퇴함으로써 전체 주거복지지수의 개선 저해
- 종합평가 :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지원에도 비효율성과 문제점 도출
- 주거복지의 중복 수혜와 약 110만 호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공존

○ 시사점과 과제

- 주택공급 :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민간 임대주택 서비스업의 활성화와 전문화 유인
- 주거환경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최소화(①단기: 주거환경 개선 지원, ②장기: 최저주거기준 제고)
- 주거비용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 및 주거비 지원
- 전세가격 및 대출 금리 하향 안정화, 주택바우처 도입 등



대한상의

■ **중소제조업체 3곳 중 1곳 “R&D인력 부족해” (5.3)**

- 중소기업 400여개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R&D인력이 부족하다’는 기업이 33.7%가 R&D인력 부족 호소
 - 지역별로는 지방기업의 35.0%, 수도권기업의 32.1%가 부족
- 주요내용
 - 연구인력 부족현상은 ‘기계’업종 가장 심하며(42%) 이어 철강(35%), 전자(34%), 화학(33%), 車부품(30%) 순으로 조사
 - 중소기업체 45%가 연내 R&D인력 평균 3명 채용할 것으로 조사(요구학력은 주로 학사(77%)임)
 -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채용의 어려움(49%)을 겪은 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사 후 교육·훈련’(34%), ‘리쿠르팅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
-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인력이 필수지만 구직자들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인력수급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 한국 중소기업의 진로와 과제' 보고서 (5.13)

- 한국 중소기업, 생존경쟁력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증가
 -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수명 : 2004년 9.6년에서 2009년 12.3년으로 5년 새 2.7년 늘어남
 - 대한상의 :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의 평균수명 증가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존 경쟁력이 강화 되었음을 의미
 - 기업 성장단계별 특징 : ①'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 비중은 늘어나고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 비중은 줄어듦(성장단계별 비중('06→'09년,%) : 진입기(8.8→ 9.7), 성장기 (46.8→ 48.4), 성숙기(32.7→ 36.0), 쇠퇴기(11.7→ 5.9)).
- 수익률, 수출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 생존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생산성, 기술수준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
 -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저가의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0.06%, 2009년 0.6%, 2010년 4.2%로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의 장수방안 마련 필요
- '국내 중소기업의 장수기업 모델'을 제시하며, 기본역량으로 품질제고와 원가절감, 납기준수, 시장대응, 기술개발의 필요성 주장
 - 품질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며, 공정개선이나 생산성향상을 통해 경쟁업체보다 제품원가를 낮추려는 노력 필요
 - 고객 신뢰확보를 위한 납기준수와 시장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태도, 핵심기술 개발 노력 필요
 -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글로벌화 추진'과 미래의 먹거리인 '신성장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
 -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치밀한 기업승계계획 수립과 경영후계자 양성 필수적

한눈에 보는 '최소 주거면적 상향조정' (국토부)



4. 타 시·도 동향



서울특별시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진흥 위한 'BS허브포털' 오픈 (5.2)

-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 변보경)는 광고/시장 조사, 컨설팅, 엔지니어링 산업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BS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허브포털 사이트인 'BS허브포털'(<http://bs.seoul.kr>) 오픈('11.05.02)
- 제공 서비스 : ①제공정보는 지원사업정보, 전문정보, BS기업정보의 3가지 구분 ②지원 사업 정보란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BS 지원사업과 참여기업의 실적 제공 ③전문 정보에서는 국내/해외동향 보고서, 지식인 스콜라, 교육/세미나 자료 제공 ④BS기업 DB를 통해서 서울시 약 8,000여개의 BS기업을 분야별로 검색 가능
- * BS산업 허브포털 : 분야별로 분산된 비즈니스서비스 분야별 지원사업정보, 전문자료, 기업DB등을 한데모아, BS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환경 기반의 시장조사 솔루션(온라인 시장조사)를 탑재해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들의 시장조사 서비스 지원

■ 전국최초 중증응급환자 진료가능병원 실시간확인시스템 구축 (5.9)

- 전국 최초,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질환별 진료가능병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11.05월부터)
- 주요내용 : 국가응급이송망(NAIS)에 근거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복부손상, 응급투석, 응급내시경, 조산산모, 사지접합, 신생아, 중중화상, 정신질환자 등 11개 항목으로 서울1339홈페이지(<http://www.1339se.or.kr>)에 접속하여 중증응급환자 질환별 진료가능 응급의료기관 확인

■ '택시서비스 상시평가' 로 서비스 질 향상 (5.16)

- 택시업체 간의 선의의 서비스 경쟁 유도 및 체질개선을 위해 외부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올해 택시서비스 평가 실시(2011.5월~12월)
- 주요내용 : ①지난해보다 기간(4→8개월)·표본수(8천→1만6천대 이상) 확대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식·노력 유도 ②친절응대, 청결상태, 교통법규 준수 여부 등 서비스 전반 평가 ③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는 포상금 지급, 하위 업체는 특별 교육 실시 예정



부산광역시

■ 부산, 공기업 감사 강화대책 마련 (5.17)

- 최근 시 체육회 보조금 유용, (재)부산테크노파크 장비관리 소홀로 인한 재정손실 등 시 출자·출연기관의 공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화대책 추진
- 주요내용 : ①출자·출연기관 등 공기업에 대한 감사 강화 ②비리발생요인 잠재기관 중심 집중감사 실시(회계업무 위주 → 입체 감사) ③감사기간 연장 및 감사인력 탄력적 운영(1주일 → 2주일, 2명 → 4~5명) ④조직 명칭변경(현행 「회계감사담당」 → 「공기업감사담당」)하는 등 대책 마련



대전광역시

■ 전국 최초 '전세가격예측시스템' 구축 (5.9)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세가격 상승과 하락의 동향 등을 예측하기 위해 주택관련 지표분석과 시장모니터링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전세가격예측시스템' 구축
- 예측 가능한 주택전세 가격지수를 도출해, 시스템에 의해 예측된 주택전세 가격지수의 변화에 따라 전세가격을 예측해 효율적인 주택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
- * 활용 지표 : 국고채(3년만기), 전세수급동향, 주택매매 가격지수, 순 전입인구 전세비율, 주택건설 실적 등



경기도

■ 국내 최초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센터 착공 (5.11)

- 국내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만을 유통시키는 전문 유통센터가 기공식 개최
- 주요내용 : ①경기도와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총사업비 480억 투입 ②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를 위한 집배송장과 저온저장고, 전처리실 및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 업체시설 등의 주요시설 배치



충청남도

■ 박물관·체육시설 ‘그린카드 혜택’ 추진 (5.2)

- 2011년 6월 시행 예정인 그린카드제에 발맞춰 도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람료 할인 등 추진
- 주요내용 : 금강자연휴양림과 백제문화단지, 도내 주요 박물관과 체육문화시설,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 향후 계획 : ①지역 내 녹색제품 제조업체의 그린포인트 제공 유도 등 적극 추진 ②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그린카드 홍보 실시
- * 그린카드 : 기존 탄소포인트와 친환경상품 구입으로 얻은 녹색소비 포인트, 대중교통 이용 때 발생한 녹색생활 포인트를 신용카드 포인트와 통합, 현금처럼 사용하는 제도



전라남도

■ 전국 최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조례 제정 (5.5)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공장식 밀집사육에 따른 관행축산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주요내용 : ①진척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고 ②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 추진 ③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가축 운동장 확보면적 제시,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축산분야 정책사업 지원 등 포함

FTA...3농정책 근간 59개 정책 건의 (5.12)

-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정책을 근간으로 한 59개 정책과제 확정,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
- 주요 건의사항 : 4대 분야 총 59개 과제

분야	과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12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부문에 투자하는 가칭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폐업보상 확대 및 소득보전직불금 기준조수입 및 보전비율을 95%로 현실화 • 소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기금 조성, 재해보험 등 공공보험 확대 등
농축산 경쟁력 강화 (19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 친환경 농축산물 가공 유통시설 확충,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쌀 유통회사 설립 •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확대 • 수확기계 개발 보급 및 지역 특산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농생명 중장산업 육성 • 전통주 산업화, 국산밀과 곡산산업 종합 육성 등
신성장동력 기반확충 (12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로 농업분야 피해가 많고 낙후된 전남에 농업분야 연구 및 지원기관 우선 배치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농지규제 완화 • 영산강 간척지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16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확대 및 농어촌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 귀농자 지원 및 신지식 학사농업인 신용보증 우대 • 농과대생 학자금 감면 농업인 건강보험 부담금 감면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확대 •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 고령농업인 재산소득 환산시 농지소득 제외 등



경상남도·전라남도

경남·전남 9개 시군*, 공동발전 협의회 출범 (5.3)

- 경남과 전남의 9개 시·군이 동서화합과 남해안 선벨트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공동발전 위해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출범
- 주요내용 : 초광역개발계획의 성공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및 구체적 사업추진의 구심체 역할 및 2개 시·군 이상의 연계사업,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 남중권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등 협의기능 담당

* 경남·전남 참여(9개) 시군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고흥군, 보성군

제3부

산업경제트렌드 풍향계

1. 충북 경제동향
2. 국내 경제동향
3. 국제 경제동향

1. 충북 경제동향

1) 경기

■ 충북경기선행종합지수

- 2011년 3월 충북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8% 상승한 116.9를 기록
- 충북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8%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중이며 증가 폭 확대
- 경기전환점 예측 보조지표로 사용되는 충북경기선행종합지수의 전년동월비 (S12M)는 전월대비 1.8%p 상승한 4.2%를 기록
 - 경기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S12M)는 금월 4.2% 증가하면서 1월 상승 전환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 금월 충북경기선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 중 자본재 수입액, 건축허가면적, 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 예금은행 대출금, 자본재출하지수 등 6개 지표가 전월 대비 모두 상승

[선행종합지수 및 전년동월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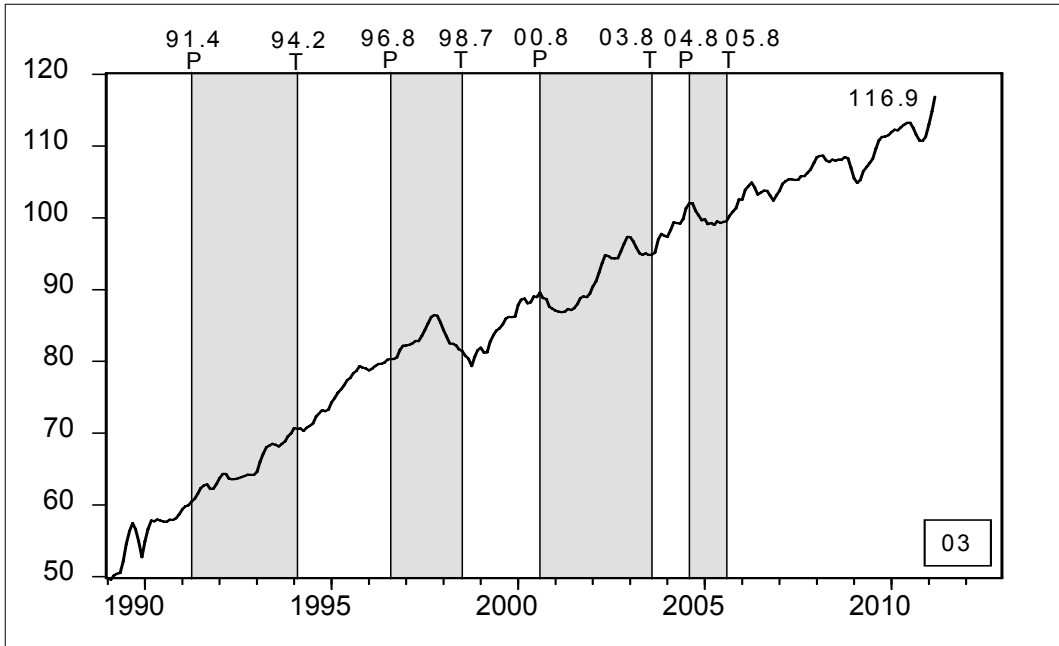
(2005=100, %, %p)

구 분	2010										2011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선행종합지수	112.3	112.7	113.1	113.4	113.4	112.7	111.7	110.9	110.8	111.4	113.0	114.8	116.9
선행종합지수 전월비	-0.1	0.4	0.3	0.3	0.0	-0.6	-0.8	-0.7	-0.1	0.5	1.5	1.6	1.8
전년동월비	4.7	5.3	5.9	5.6	5.3	3.9	2.3	0.5	-0.3	-0.2	1.0	2.4	4.2
전년동월비 전월차	-0.3	0.1	0.1	-0.1	-0.5	-1.3	-1.4	-1.2	-0.5	0.1	1.2	1.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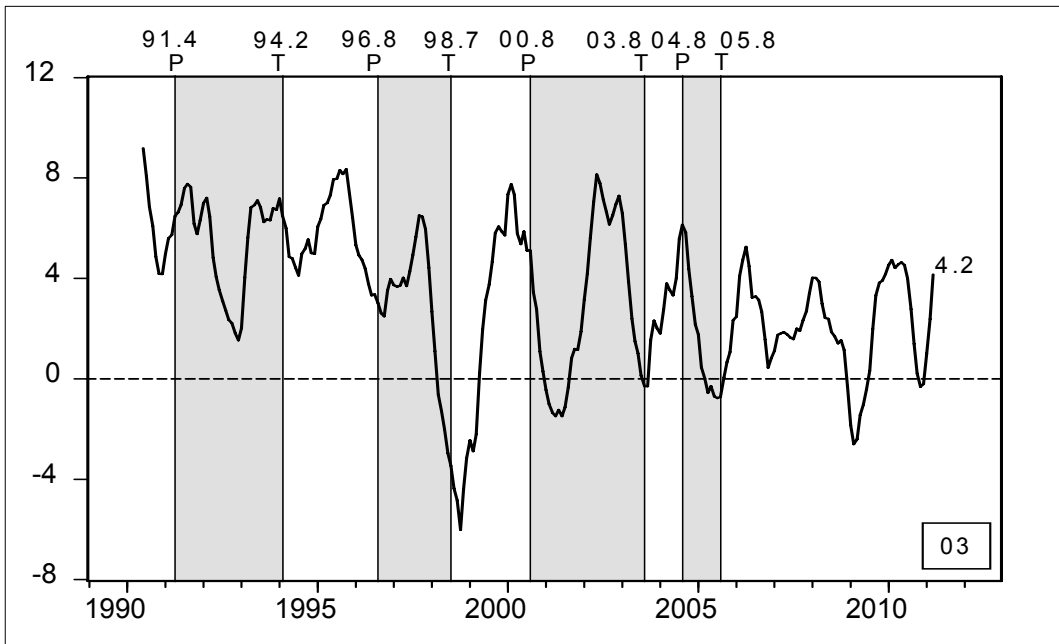
주 : 최근 2개월은 잠정자료임

○ 경기선행종합지수(Leading Composite Index)

(2005=100)



○ 경기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12month Smoothed Change in Leading CI)



- 충북경기선행종합지수 6개 구성지표 중 6개 지표가 모두 상승하며 충북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산업생산활동을 반영하는 재고순환지표와 자본재출하지수가 전월대비 각각 0.6%, 0.4% 상승
 - 재고순환지표는 전월대비 4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
 - 자본재출하지수는 전월대비 3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
 - 건축허가면적은 전월대비 1.6% 상승, 예금은행 대출금은 전월대비 0.6% 증가 기록
 - 자본재 수입액은 전월 3.0% 증가보다 확대되며 금월 전월대비 4.9% 상승
 -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구인-구직비율은 전월대비 1.6% 상승하여 4개월 연속 증가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2010										2011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재고순환지표	-2.3	-2.4	-1.1	-0.5	0.1	-1.6	-1.7	-2.1	-0.6	0.6	1.1	0.3	0.6
자본재출하지수	-0.4	0.8	1.2	0.6	0.5	-0.6	-0.3	-0.4	-0.1	-0.1	0.4	0.6	0.4
건축허가면적	-0.5	0.2	0.1	1.7	0.0	0.3	-1.0	-0.5	-0.5	-0.9	-0.2	0.4	1.6
대출금액	0.0	0.0	0.1	-0.1	-0.1	-0.3	0.0	0.3	0.3	0.2	0.2	0.5	0.6
자본재수입액	-1.0	0.0	-0.2	1.1	0.5	0.1	0.1	0.0	0.6	1.1	4.1	3.0	4.9
구인-구직비율	3.9	3.3	1.6	-1.3	-1.0	-1.2	-1.5	-1.1	-0.1	1.9	3.0	3.6	1.6

주: 증감률은 계절 및 불규칙 조정계열의 전월비 증감률임.

자료의 잠정기준은 건축허가면적, 예금은행대출금, 구인-구직비율은 확정치

재고순환지표, 자본재출하지수 : 2개월

자본재수입액 : 3개월

■ 충북 경기동행종합지수

- 2011년 3월 충북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한 119.9를 기록
 - 충북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4개월 연속 상승하며 경기 상승 국면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상승한 102.1을 기록
 - 금월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상승하며 전월(+0.5p)보다 상승폭 확대
- 충북 경기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는 수입액, 전력판매량, 비농가 취업자 수,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경기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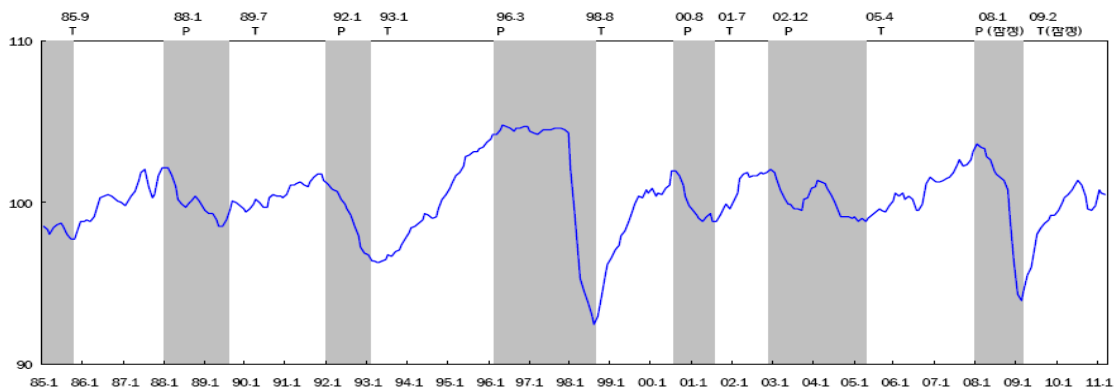
[경기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동향]

(2005=100, %, %p)

구분	2010											2011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동행종합지수	114.0	114.9	115.4	115.8	116.0	116.3	116.1	115.4	114.9	115.4	117.8	118.7	119.9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0.7	0.8	0.4	0.3	0.2	0.3	-0.2	-0.6	-0.4	0.5	2.0	0.8	1.0	
순환 변동치	100.8	101.3	101.5	101.5	101.5	101.5	101.0	100.1	99.4	99.6	100.9	101.4	102.1	
순환 변동치 전월차	0.5	0.5	0.2	0.1	-0.1	0.0	-0.5	-0.9	-0.7	0.2	1.3	0.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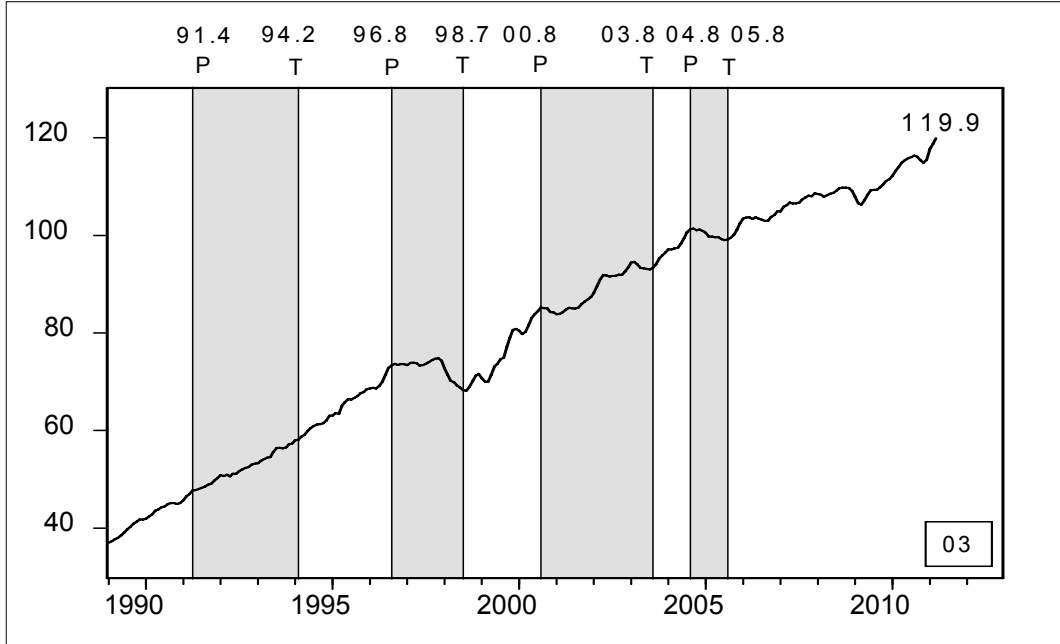
주 : 최근 3개월은 잠정자료임

[전국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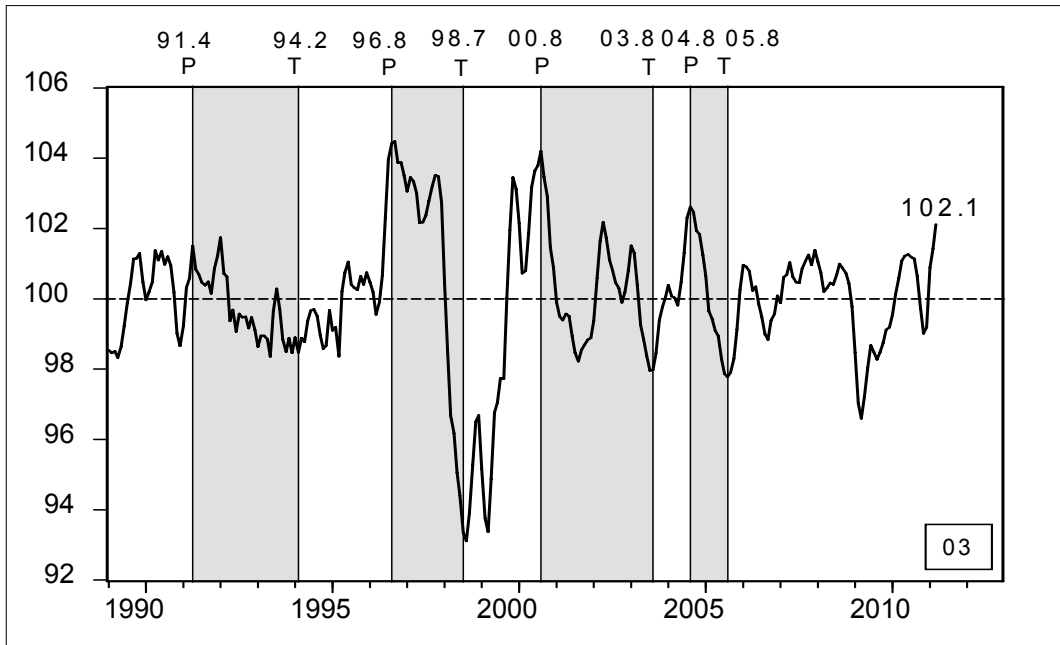


[충북경기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2005=100)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omposite Index)]



-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이 제거된 계열) 중 수입액, 전력판매량, 비농가 취업자 수,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등 5개 지표 모두 증가
 -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비농가 취업자 수는 전월 2.3% 증가에서 금월은 0.8% 증가하며 증가폭 축소
 - 산업생산활동을 반영하는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 0.2% 감소에서 금월 0.3% 증가하며 증가 전환
 - 전력판매량은 전월 1.1% 증가에서 금월 0.9%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소비부문을 나타내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월 0.2% 감소에서 금월 0.3% 증가하며 다시 증가 전환
 - 대외부문을 나타내는 수입액은 전월 1.2% 증가에서 금월 전월대비 2.7% 증가하며 증가폭 확대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2010										2011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비농가취업자수	2.1	2.2	1.7	0.7	-0.5	0.4	-1.0	-0.9	-0.7	0.4	1.4	2.3	0.8
산업생산지수	0.4	0.5	0.2	0.4	0.5	0.4	-0.1	-0.2	0.3	1.2	0.7	-0.2	0.3
전력사용량	0.8	-0.1	-0.1	-0.2	0.1	0.4	0.5	0.0	0.0	0.7	2.4	1.1	0.9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0.0	0.5	0.2	0.4	0.5	0.2	0.3	-0.8	-1.1	-0.6	2.4	-0.2	0.3
수입액	0.4	0.8	0.2	0.3	0.4	-0.2	-0.7	-1.2	-0.7	0.6	3.1	1.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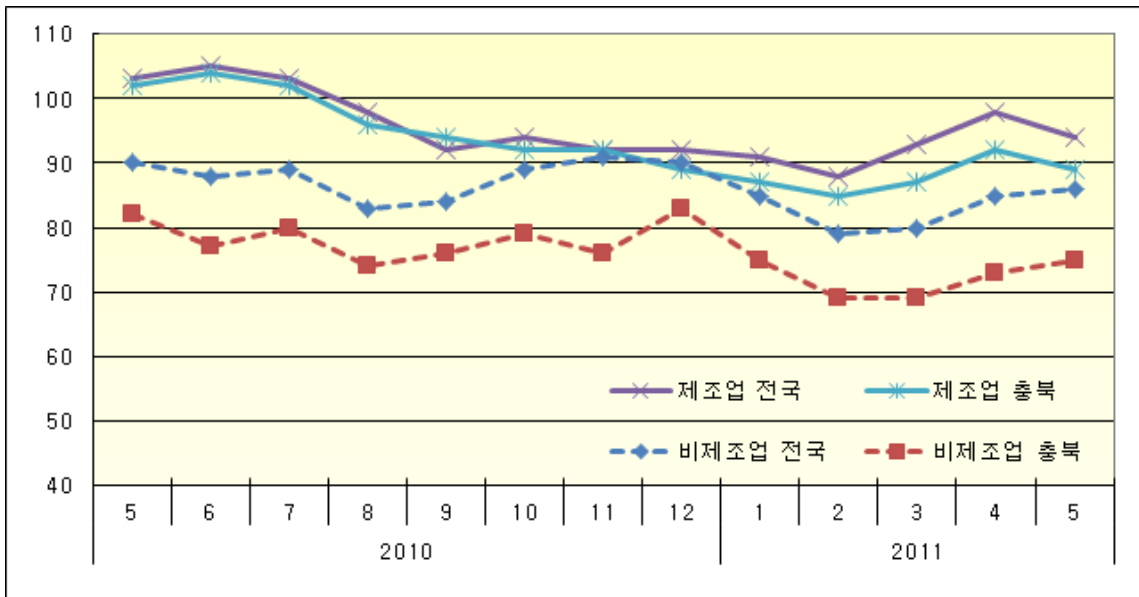
주 : 증감률은 계절 및 불규칙 조정 계열의 전월비 증감률임.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자료의 잠정기준은 광공업생산지수 최근 2개월, 수입액 최근 3개월임

■ 기업경기 실사조사(BSI)

- 5월 충북 도내 기업체감경기는 제조업(89) 전월대비 상승, 비제조업(75) 하락
 - 제조업 BSI는 재고수준 BSI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매출, 수출, 생산, 신규수주, 가동률, 원자재구입가격, 제품판매가격, 채산성, 자금사정, 인력사정, 생산설비수준, 설비투자 BSI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하면서 전월(81)보다 하락한 89를 기록
 -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 영상음향통신,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등에서는 부진 의견이 증가함
 -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전월대비 각각 1p, 3p 하락
 - 수출기업은 전월대비 5p 하락하면서, 1p 상승한 수출기업보다 경기부진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 업황 BSI는 자금사정, 인력사정 BSI가 하락하였으나 매출 BSI가 상승하며 전월보다 2p 상승한 75를 기록
 - 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서 경기 개선을 체감

[전국과 충청지역 업황 실적 BSI 추이]

(기준치=100)



[전국과 충북지역 업황 실적 BSI 추이]

(기준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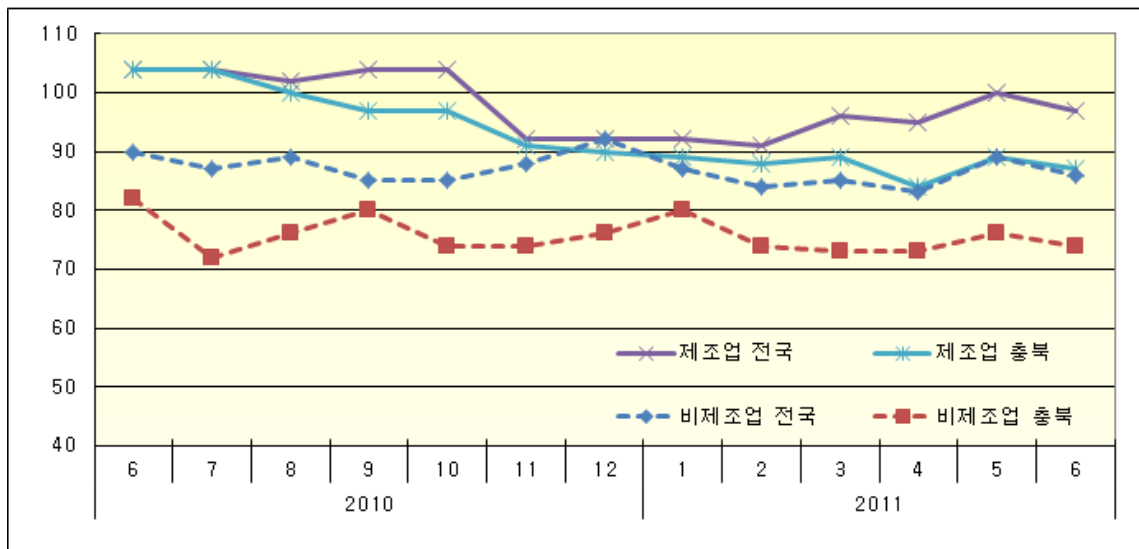
		2010										2011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제조업	전국	103	105	103	98	92	94	92	92	91	88	93	98	94	
	충북	102	104	102	96	94	92	92	89	87	85	87	92	89	
비제조업	전국	90	88	89	83	84	89	91	90	85	79	80	85	86	
	충북	82	77	80	74	76	79	76	83	75	69	69	73	75	

※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 6월 전망 BSI로 보면, 제조업, 비제조업은 모두 전월보다 2p 하락하며 경기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전기장비, 기타중화학공업, 음식료품 등에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

[전국과 충북지역 전망 BSI 추이]

(기준치=100)



[전국 및 충북 경기전망 BSI]

(기준치=100)

		2010							2011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제조업	전국	104	104	102	104	104	92	92	92	91	96	95	100	97
	충북	104	104	100	97	97	91	90	89	88	89	84	89	87
비제조업	전국	90	87	89	85	85	88	92	87	84	85	83	89	86
	충북	82	72	76	80	74	74	76	80	74	73	73	76	74

■ 부동산경기 실사 지수

- 3월 부동산경기 실사지수(RBSI)를 분석한 결과
 - 체감경기(85→77.5), 거래실적(76.5→77.7), 자금사정(75.5→77.7)이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부동산경기 변화의 주요원인은 계절적인 요인, 외지인의 충북에 대한 부동산 투자 기대심리 저하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예상경기실사지수(106→90.2)는 전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봄이되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여전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부동산 경기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부동산 경기실사지수 (RBSI)]

* RBSI(Real estate Business Survey Index)

* RBSI = 100(보합), 100초과(경기호전), 100미만(경기악화)로 예상

$$* RBSI = \frac{\text{호전예상업체수} - \text{악화예상업체수}}{\text{총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quad 0 \leq RBSI \leq 200$$

○ 부동산관련 경기동향 분석

- 체감경기 실사지수 : 75.5(85→75.5)

구분	호전	보통	악화	합 계		비고
				인원	RBSI*	
계	12 (17)	116 (136)	57 (47)	184	75.5 (85)	전월비 9.5p하락

* ()안은 전월비

- 거래실적 실사지수 : 77.7(76.5→77.7)

구분	증가	동일	감소	합 계		비고
				인원	RBSI*	
계	15 (13)	113 (127)	56 (60)	184	77.7 (76.5)	전월비 1.2p증가

* ()안은 전월비

- 자금사정 실사지수 : 77.7(75.5→77.7)

구분	원활	동일	악화	합 계		비고
				인원	RBSI*	
계	13 (10)	117 (131)	54 (59)	184	77.7 (75.5)	전월비 2.2증가

* ()안은 전월비

- 예상경기동향 실사지수 : 90.2(106.5→90.2)

구분	호전	보통	악화	합 계		비고
				인원	RBSI*	
계	51 (48)	104 (118)	49 (35)	184	90.2 (106.5)	전월비 16.3p하락

* ()안은 전월비

○ 주요 경영 애로요인

- 매출부문에서는 업체간 과당경쟁
- 자금부문에서는 거래부진,
- 고용부문에서는 자금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이 주요 애로요인으로 나타났음

2) 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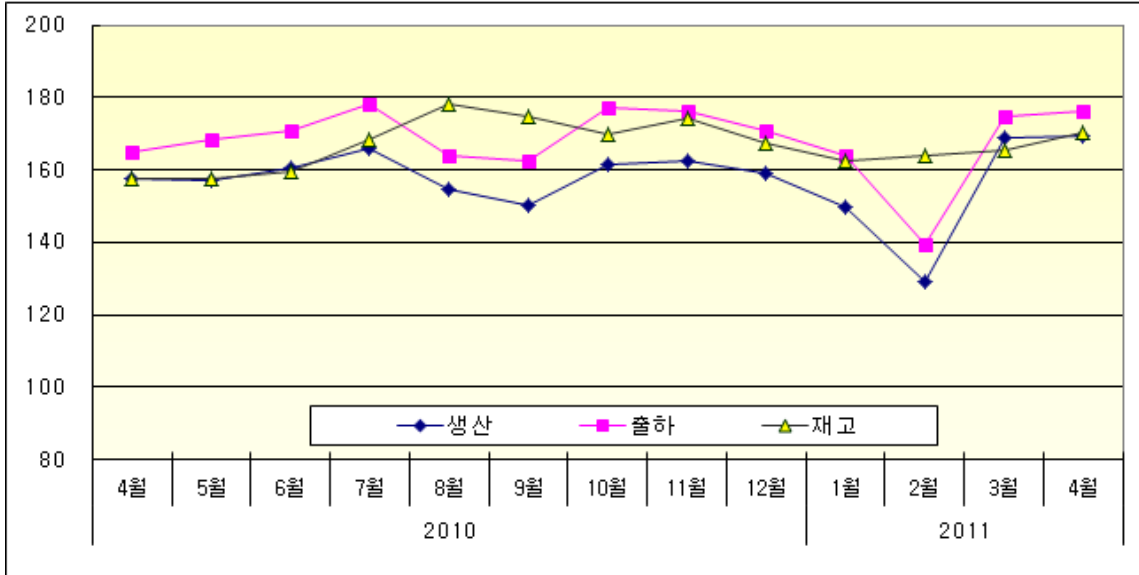
■ 산업생산동향 총괄

-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7% 증가, 전월대비 0.5%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계 및 장비(-22.6%), 비금속광물제품(-7.6%)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16.5%), 전기장비(13.5%), 의약품(16.6%), 화학제품(8.1%) 등의 업종에서 증가
- 출하부문은 전년동월대비 6.6% 증가, 전월대비 0.8%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계 및 장비(-8.8%), 비금속광물제품(-5.1%)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8.0%), 전기장비(10.8%), 화학제품(9.5%), 의약품(15.6%) 등의 업종에서 증가
- 재고부문은 전년동월대비 8.1% 증가, 전월대비 3.0% 증가
 - 전년동월대비 식료품(-3.8%), 기계 및 장비(-6.3%)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13.5%), 자동차(113.2%), 화학제품(22.0%), 금속가공제품(23.4%) 등의 업종에서 증가
- 경기회복세가 최근 더디게 나타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과 출하지수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월별 산업 활동 지수 추이]

(원지수 2005=100)

구 분	2010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생산	지수	157.4	157.3	160.7	165.7	154.6	150.1	161.4	162.5	159.0	149.8	128.9	168.7	169.5
	증감률	17.1	16.7	15.7	14.0	16.4	-2.3	14.1	12.8	11.4	9.6	2.8	11.5	7.7
출하	지수	165.2	168.5	170.9	178.1	163.9	162.4	177.3	176.1	170.7	164.2	139.5	174.7	176.1
	증감률	16.7	18.8	14.9	18.1	11.9	-1.3	15.7	13.4	13.4	13.4	4.3	10.4	6.6
재고	지수	157.6	157.8	159.8	168.3	178.3	174.7	169.9	174.5	167.6	162.6	164.1	165.3	170.3
	증감률	-2.4	-3.2	-0.5	-1.9	11.0	14.5	18.0	20.9	12.4	9.1	10.6	6.0	8.1



주: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 광공업생산지수

- 4월 전국 광공업생산 지수는 149.7로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전월대비 2.7% 감소
- 4월 충북 광업생산 지수는 169.5로 전년동월대비 7.7% 증가, 전월대비 0.5%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비금속광물제품(-7.6%), 식료품(-0.7%)이 감소한 가운데, 전기전자제품(16.5%), 화학제품(8.1%)이 상승하면서,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7.7%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산업생산지수는 전국 평균 8.7% 상승한 가운데 충북은 전국 평균을 상회
 - 광주광역시(18.5%), 울산광역시(10.8%), 충청남도(9.2%), 경기도(9.0%) 등 지역에서 상승하였으며, 대전광역시(-9.9%), 서울특별시(-8.5%), 경상북도(-2.1%) 등 지역에서 감소함
- 충북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은 16개 시도 중 7번째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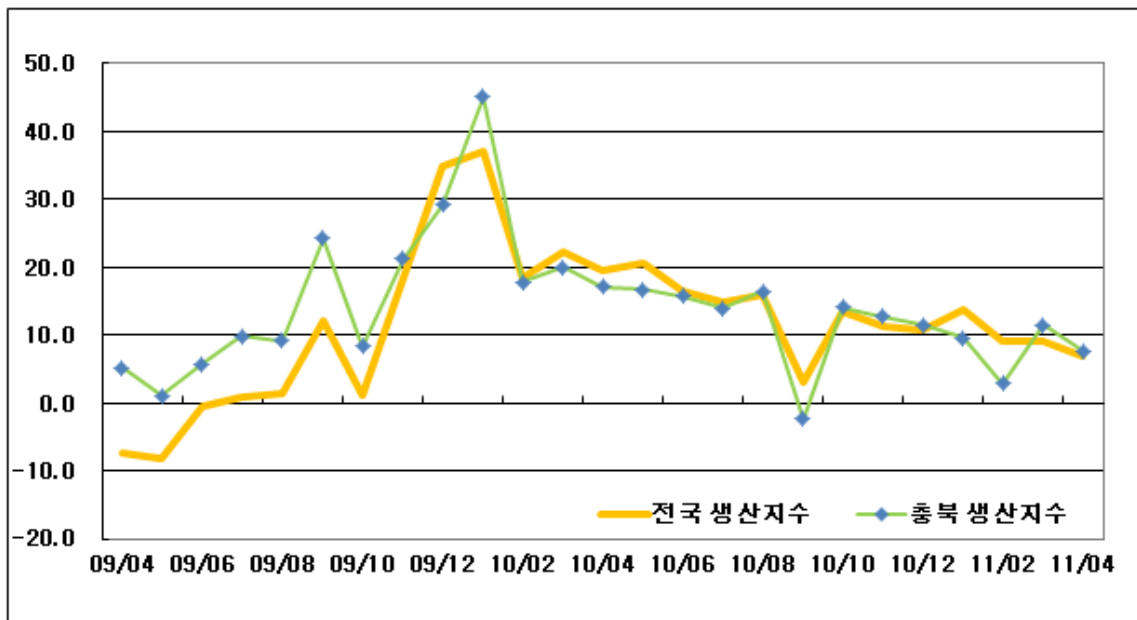
(단위: %, 2005=100)

구분	2010년		2011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전년동월비)	140.0	149.2	146.9	129.8	153.8	149.7
	19.5	10.7	13.6	9.0	9.0	6.9
충북 (전년동월비)	157.4	159.0	149.8	128.9	168.7	169.5
	17.1	11.4	9.6	2.8	11.5	7.7
식료품 (전년동월비)	135.1	137.9	137.3	103.3	133.0	134.1
	4.2	4.0	1.5	-8.1	1.0	-0.7
화학제품 (전년동월비)	172.2	170.4	162.0	132.1	188.7	186.2
	-0.1	-6.7	-10.6	-13.5	14.6	8.1
비금속제품 (전년동월비)	135.5	100.7	61.7	61.2	117.5	125.2
	11.0	0.3	-5.8	-13.4	10.2	-7.6
전기전자 (전년동월비)	203.8	223.6	216.1	189.8	226.0	237.5
	25.3	28.7	17.1	10.9	12.3	16.5

주: ()안은 전년동월비이며, 최근 2개월 자료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전년 동월 증감률, %)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 4월 전국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14.5로 전년동월대비 7.3% 증가, 전월대비 3.3% 감소
- 4월 충북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76.1로 전년동월대비 6.6% 증가, 전월대비 0.8%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비금속제품(-5.1%)이 감소한 반면, 화학제품(9.5%), 전자부품산업(8.0%), 식료품(6.0%) 등 충북의 주요 제조업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출하지수는 전국 평균 7.3% 상승한 가운데 충북은 전국 평균을 하회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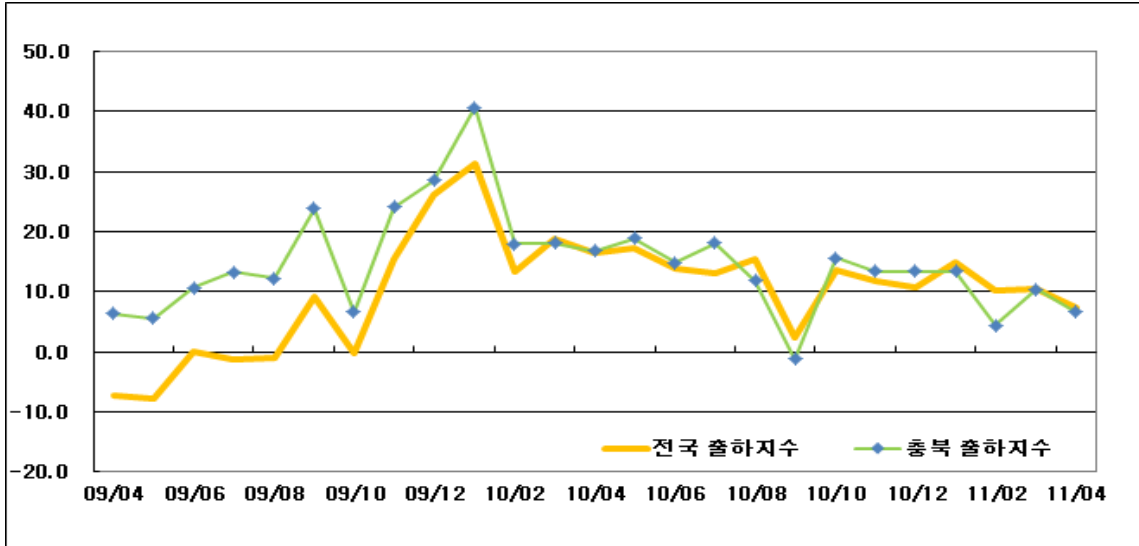
(단위: %, 2005=100)

구분	2010년		2011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전년동월비)	134.7	143.9	141.4	125.2	149.5	144.5
	16.5	10.6	14.9	10.2	10.6	7.3
충북 (전년동월비)	165.2	170.7	164.2	139.5	174.7	176.1
	16.7	13.4	13.4	4.3	10.4	6.6
식료품 (전년동월비)	143.2	169.9	166.7	112.4	147.8	151.8
	4.7	7.1	5.2	-10.9	-2.0	6.0
화학제품 (전년동월비)	177.2	175.7	167.7	138.5	195.2	194.0
	4.2	-5.1	-4.4	-11.6	15.0	9.5
비금속제품 (전년동월비)	136.2	100.0	60.3	67.9	120.5	129.2
	7.0	0.0	-6.4	-3.3	9.6	-5.1
전기전자 (전년동월비)	219.3	239.7	239.0	201.8	227.4	236.9
	21.0	29.9	22.1	6.8	7.9	8.0

주: ()안은 전년동월비이며, 최근 2개월 자료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광공업 생산자 제품 출하지수 증감률 추이]

(전년 동월 증감률, %)



참고	OECD, 경제전망 발표			
○ 세계경제는 2011년 4.2%, 2012년 4.6%로 성장할 전망				
	2011		2012	
	10.11월	11.5월	10.11월	11.5월
세계 GDP 성장률 ¹⁾	4.2	4.2	4.6	4.6
OECD 국가	2.3	2.3	2.8	2.8
미 국	2.2	2.6	3.1	3.1
유 로	1.7	2.0	2.0	2.0
일 본	1.7	△0.9	1.3	2.2
한 국	4.3	4.6	4.8	4.5
OECD 산출량갭	△2.9	△3.2	△2.1	△2.4
OECD 실업률	8.1	7.9	7.5	7.4
OECD 물가상승률 ²⁾	1.5	2.3	1.4	1.7
OECD 재정수지(對GDP)	△6.1	△6.7	△4.7	△5.6
1) PPP환율 기준 2)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 한국경제는 11년 4.6%, 12년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10.11월 전망에 비해 '11년 성장률을 0.3%p 상향 조정				
- 10.11월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 (11) 4.3% (12) 4.8%				
○ (평가 및 권고) 정책금리 인상, 환율 절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OECD, 경제전망 발표”, 2011.5.25.(수).

■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 4월 전국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37.6으로 전년동월대비 8.9% 증가, 전월대비 0.1% 증가
- 4월 충북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70.3으로 전년동월대비 8.1% 증가, 전월대비 3.0%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식료품(-3.8%)이 감소한 반면, 화학제품(22.0%), 전기전자(13.5%), 비금속제품(3.7%) 등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재고지수는 전국 평균 9.8% 상승한 가운데 충북은 전국 평균을 하회

[광공업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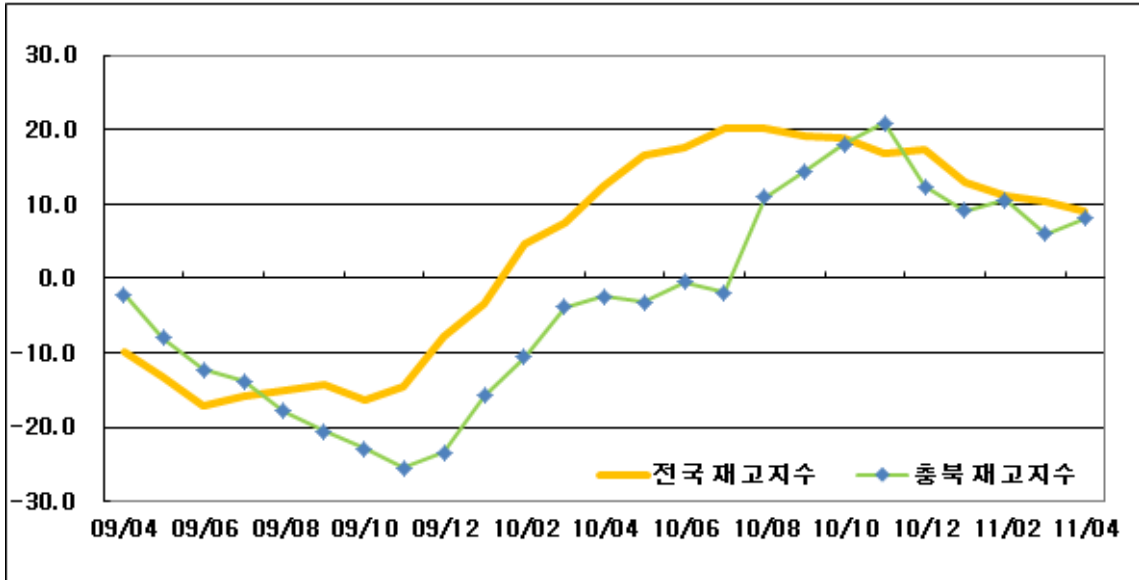
(단위: %, 2005=100)

구분	2010년		2011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전년동월비)	126.3	135.6	135.4	137.1	137.4	137.6
	12.5	17.4	13.0	11.2	10.3	8.9
충북 (전년동월비)	157.6	167.6	162.6	164.1	165.3	170.3
	-2.4	12.4	9.1	10.6	6.0	8.1
식료품 (전년동월비)	277.2	294.8	265.2	260.4	271.4	266.7
	-1.2	-1.6	-8.4	-7.2	0.4	-3.8
화학제품 (전년동월비)	65.6	79.0	75.7	77.3	80.0	80.0
	-31.0	24.8	11.8	12.0	15.9	22.0
비금속제품 (전년동월비)	113.2	119.9	127.5	113.6	113.6	117.4
	19.9	4.3	9.9	-6.0	4.5	3.7
전기전자 (전년동월비)	270.9	303.5	282.9	293.7	293.3	307.6
	6.1	25.9	18.8	27.3	10.3	13.5

주: ()안은 전년동월비이며, 최근 2개월 자료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자제품 재고지수 증감률 추이]

(전년 동월 증감률, %)



■ 재고율

- 4월 전국 생산자제품 재고율은 95.2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전월대비 3.6% 증가
- 4월 충북 생산자제품 재고율은 96.7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전월대비 2.2% 증가
- 전년동월대비 재고율은 전국 평균 1.6% 상승한 가운데 충북은 전국 평균을 하회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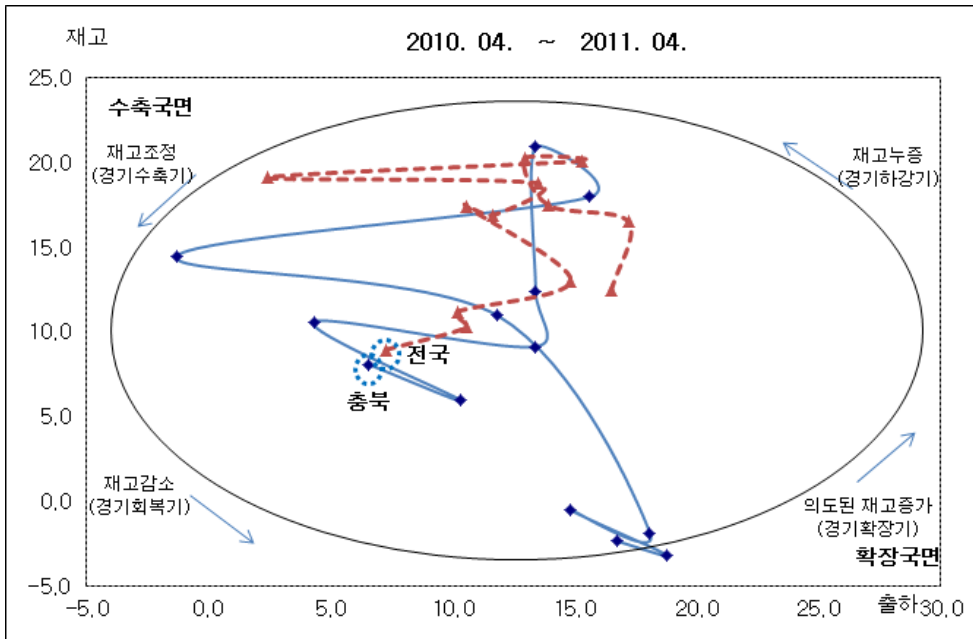
(단위: %, 2005=100)

구분	2010년			2011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92.2	93.9	94.2	95.8	109.6	91.6
(전년동월비)	7.5	16.9	17.4	13.0	11.4	9.8
충북	98.5	99.1	98.2	99.0	116.0	90.3
(전년동월비)	-18.6	6.6	-0.9	-3.8	4.5	-8.4

주: ()안은 전년동월비이며, 최근 2개월 자료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 4월 재고순환을 보면 출하지수와 재고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소폭의 생산활동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제조업 재고순환]



주: 재고순환지표: X축에 출하 전년 동월비, Y축에는 재고 전년 동월비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 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지표

■ 청주산업단지 업종별 생산실적

- 생산액 증감요인
 - 음식료, 석유화학 업종 등이 상승을 이끌어 2005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전분기(2010년 4/4분기) 보다도 소폭 증가하였고, 전년 동분기 대비는 실적 비중이 큰 업종의 고른 상승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기계업종의 경우 업종내 생산액 비중이 큰 1개사가 전기전자로 업종이동(적용정정)함에 따라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전망
 - 세계 경기 및 반도체 가격 동향이 변수이기는 하나, 건설중인 업체의 정상가동 및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 입주 등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종 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 감 율 (%)		
	금 분 기	누 계	전 분 기	금 분 기	누 계	전 분 기	전년동분기	누 계 비
음 식 료	310,810	310,810	296,164	379,964	379,964	28.3%	22.2%	22.2%
섬유·의복	48,804	48,804	69,141	60,003	60,003	△13.2%	22.9%	22.9%
목재·종이	10,923	10,923	14,232	11,349	11,349	△20.3%	3.9%	3.9%
석유화학	530,183	530,183	582,029	602,439	602,439	3.5%	13.6%	13.6%
비금속	16,366	16,366	22,936	16,370	16,370	△28.6%	0.0%	0.0%
철강	9,510	9,510	5,900	5,050	5,050	△14.4%	△46.9%	△46.9%
기 계	49,458	49,458	79,768	40,282	40,282	△49.5%	△18.6%	△18.6%
전기·전자	1,516,691	1,516,691	1,803,782	1,786,806	1,786,806	△0.9%	17.8%	17.8%
운송장비	5,735	5,735	5,479	8,539	8,539	55.8%	48.9%	48.9%
기 타	5,237	5,237	4,251	3,655	3,655	△14.0%	△30.2%	△30.2%
계	2,503,717	2,503,717	2,883,682	2,914,457	2,914,457	1.1%	16.4%	16.4%

오창과학산업단지 업종별 생산실적

- 생산액 증감요인
 - 전분기에 비하여 생산액이 증가되었으며, 전년 동분기와 비교 시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전체누계실적도 증가되었음.
- 향후 전망
 -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생산액 증가가 예상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종 별	2010. 1/4분기		2011. 1/4분기			증 감 율 (%)		
	금 분 기	누 계	전 분 기	금 분 기	누 계	전 분 기	전년동분기	누 계 비
계	1,822,032	1,822,032	1,836,106	2,414,823	2,414,823	31.5%	32.5%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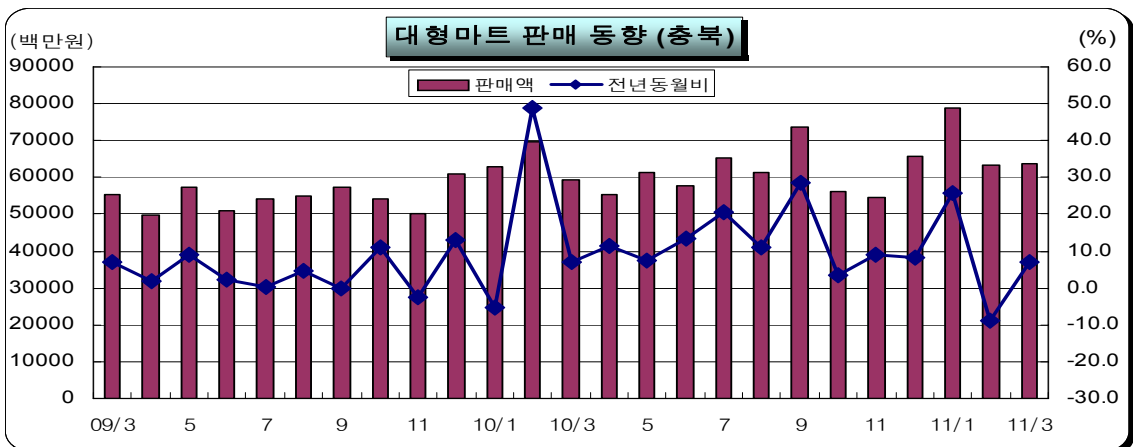
3) 소비

■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 2011년 3월 충북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 동향
 -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이 73,351백만원으로 2월 72,576백만원보다 775백만원(1.1%) 증가
 - 전년동월 경상판매액과 비교하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7.3% 증가
- 충북지역의 사업체당 대형소매점 평균판매액은 52억4천만원, 전국 평균판매액(96억5천만원)의 54.3% 수준으로 나타났음
- 충북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7.1% 각각 증가
 - 내구재(5.2% ↓) : 가전제품(-7.2%), 컴퓨터(-7.2%)
 - 준내구재(6.4% ↓) : 가방(-17.1%), 운동·오락(-16.6%), 의복(-1.2%)
 - 비내구재(3.9% ↑) : 서적·문구(10.1%), 화장품(0.7%)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 체수	판 매 액				증 감 률	
		2010년		2011년		전월비	전 년 동월비
		3월	연간	2월 ^가	3월 ^가		
· 총 북	12	59,447	743,195	63,473	63,695	0.3	7.1
· 전 국	445	2,683,650	33,733,030	2,778,393	2,918,650	5.0	8.8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 전력소비

- 3월 중 도내 전력판매량은 전월대비 1.6% 증가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8.2% 증가함
 - 생산부문 특히 제조업 부문의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제조업은 전월대비 21.6% 증가,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부문은 각각 20.8% 감소, 2.7% 증가함
- 전월대비 용도별 서비스업용(20.8%), 농수산업용(-15.6%), 주택용(-14.6%), 공공용(-9.8%)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용(21.6%), 광업용(14.7%)이 증가함

[월중 용도별 전력소비]

(단위 : 천kW/h)

용도별	2011년도			2010년도		증 감 률(%)		
	3월	전월	누계	3월	누계	전월비	전년동월비	누계비
계	1,796,287	1,768,495	5,471,336	1,659,428	5,091,976	1.6	8.2	7.5
농수산업용	41,872	49,596	140,387	38,525	128,765	-15.6	8.7	9.0
광업용	8,176	7,131	23,515	7,253	21,310	14.7	12.7	10.3
제조업용	1,052,845	865,603	2,905,324	963,968	2,699,403	21.6	9.2	7.6
서비스업용	443,879	560,459	1,573,243	423,145	1,495,206	-20.8	4.9	5.2
주택용	146,888	171,983	492,423	143,063	472,110	-14.6	2.7	4.3
공공용	102,628	113,723	336,443	83,475	275,182	-9.8	22.9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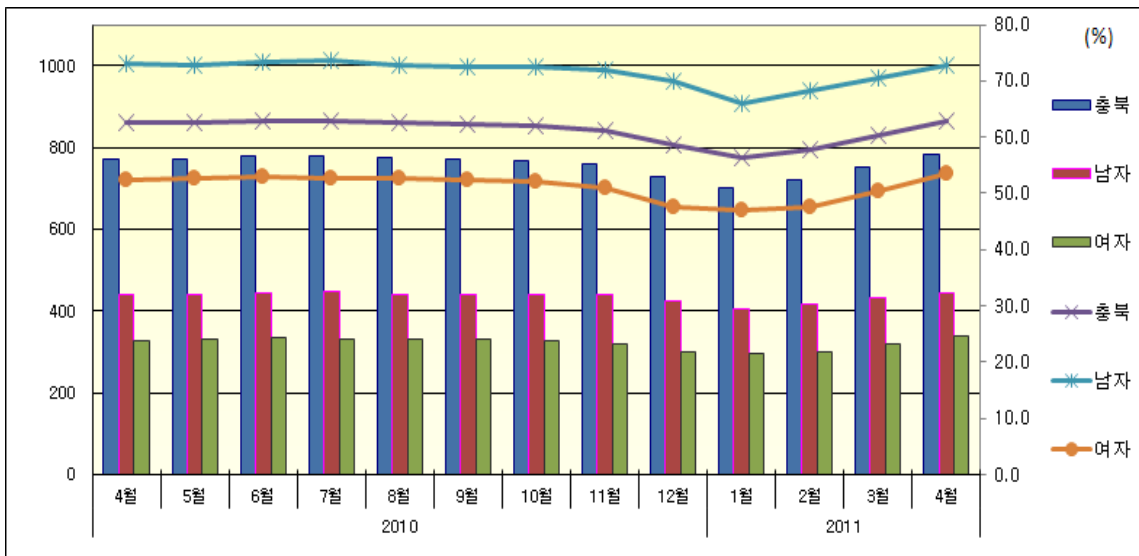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

4) 고용

■ 경제활동인구

- 4월중 15세이상인구는 1,2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1.2%)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7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명(1.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7%), 여자는 339천명으로 9천명(2.9%) 각각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7%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반면, 여자는 53.4%로 1.0%p 상승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46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0.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2.8%) 증가한 반면, 여자는 296천명으로 3천명(1.0%) 감소

[경제활동인구 추이]



주: 막대그래프는 경제활동인구, 실선은 경제활동참가율임

구 분		2010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경제 활동 인구	전국	24,858	25,099	25,158	25,232	24,836	24,911	25,004	24,847	24,538	24,114	24,431	24,918	25,240	
	충북	772	773	778	779	774	771	769	760	728	700	719	752	784	
	남자	442	441	444	447	442	441	441	439	426	404	418	433	446	
	여자	329	332	334	332	332	330	328	321	301	297	301	319	339	
경제 활동 참가율	전국	61	62	62	62	61	61	61	61	60	59	60	61	61.6	
	충북	63	63	63	63	63	62	62	61	59	56	58	60	62.9	
	남자	73	73	73	74	73	73	72	72	70	66	68	71	72.7	
	여자	52	53	53	53	53	52	52	51	48	47	48	50	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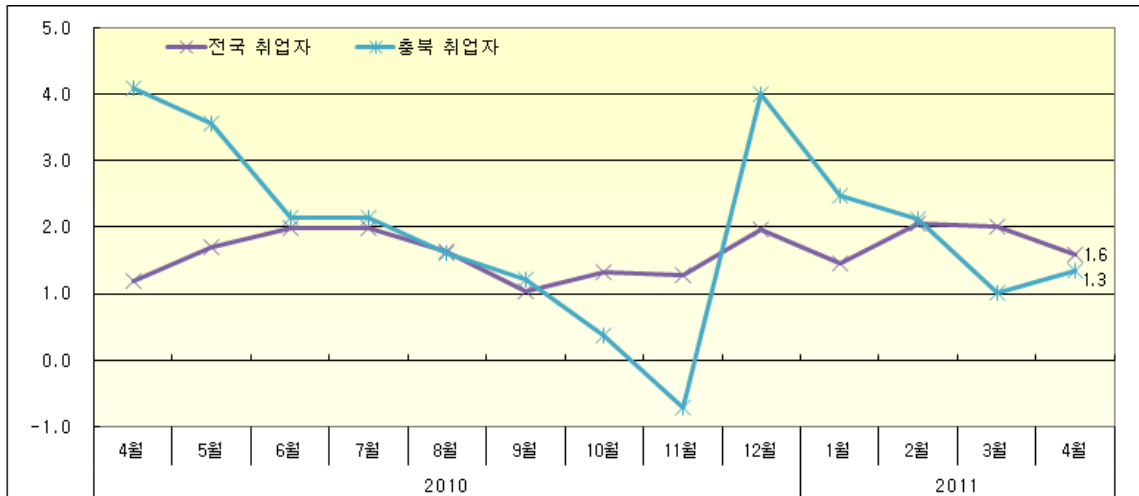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 취업자

- 4월중 취업자는 7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1.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1.1%), 여자는 330천명으로 6천명(1.7%)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1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4.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05천명으로 7천명(1.4%) 각각 증가한 반면, 광업제조업은 151천명으로 2천명(1.1%)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중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전년동월대비 9천명(6.4%)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는 4천명(1.4%) 각각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2천명(3.3%)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4천명(5.7%) 각각 감소
- 직업별로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2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3.0%) 감소한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160천명으로 7천명(4.9%),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128천명으로 6천명(4.7%), 농림어업직은 101천명으로 5천명(4.7%), 사무직은 103천명으로 1천명(1.1%) 각각 증가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2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명(6.6%), 증가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508천명으로 6천명(1.1%)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1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4.3%), 무급가족종사자는 63천명으로 8천명(14.9%) 각각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1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1.4%),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36천명으로 7천명(4.8%), 일용근로자는 60천명으로 3천명(4.9%) 각각 감소

- 충북의 취업자수는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금월 상승폭은 전월 보다 소폭 상승
-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분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1% 소폭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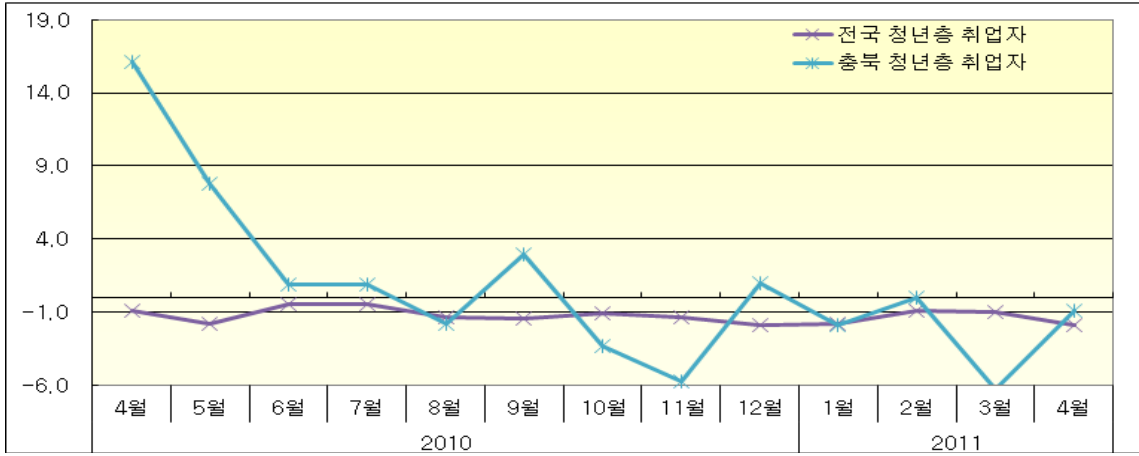
[충북 및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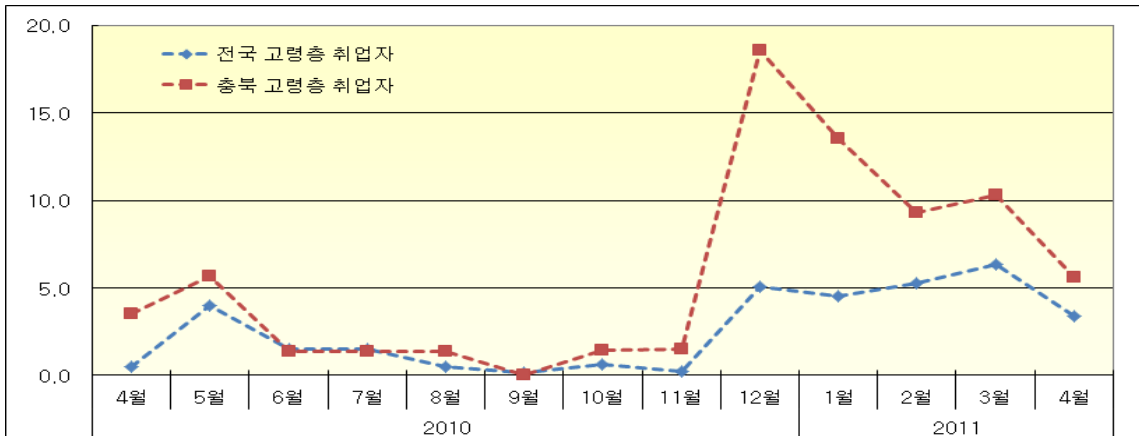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성별 취업자	전국	23,924	24,306	24,280	24,301	24,005	24,054	24,172	24,109	23,684	23,196	23,336	23,846	24,303	
	충북	756	759	767	764	760	756	754	743	711	681	697	733	766	
	남자	432	432	437	440	435	433	433	430	418	395	407	421	437	
	여자	324	328	330	324	325	322	321	313	293	286	290	312	330	
청년층 취업자	전국	3,905	4,027	3,950	4,072	3,910	3,833	3,814	3,868	3,870	3,920	3,863	3,793	3,832	
	충북	111	108	111	112	109	104	100	99	104	103	106	105	110	
고령층 취업자	전국	1,625	1,707	1,724	1,700	1,676	1,701	1,711	1,593	1,368	1,202	1,272	1,529	1,680	
	충북	71	76	76	72	73	72	71	66	51	42	47	64	75	

주 : 청년층 취업자는 15~29세, 고령층 취업자는 65세이상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청년층 취업자 동월 증감률 추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 증감률 추이]



참고	10.6월 기준 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 임금격차는 12.6% 수준
<p>○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87.4% 수준 -</p> <p>○ '10년 6월 기준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고 분석한 결과,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12.6%, 시간당 정액 급여 격차는 7.4%로 전년에 비해 각각 3.1%p, 3.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p>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OECD, 경제전망 발표”, 2011.5.23.(월).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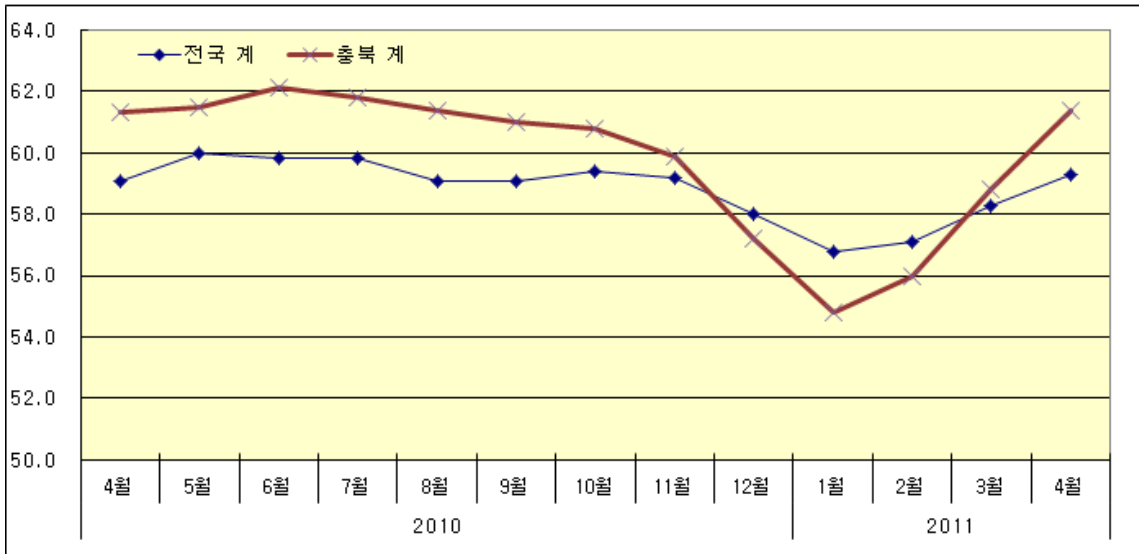
구분		2010.04	2011.03	2011.04	전 월 대 비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 체		756	733	766	33	4.5	10	1.3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105	92	111	19	20.7	6	5.7
	광공업	152	152	151	-1	-0.7	-1	-0.7
	· 제조업	151	152	151	-1	-0.7	0	0.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98	489	505	16	3.3	7	1.4
	· 건설업	57	52	55	3	5.8	-2	-3.5
	· 도소매음식숙박업	134	138	143	5	3.6	9	6.7
	·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246	243	249	6	2.5	3	1.2
	· 전기운수창고금융업	61	56	58	2	3.6	-3	-4.9
직업별 취업자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22	125	128	3	2.4	6	4.9
	사무직	102	106	103	-3	-2.8	1	1.0
	서비스판매직	152	156	160	4	2.6	8	5.3
	농림어업직	97	85	101	16	18.8	4	4.1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83	261	275	14	5.4	-8	-2.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514	494	508	14	2.8	-6	-1.2
	· 자영업주	308	311	313	2	0.6	5	1.6
	· 무급가족종사자	143	127	136	9	7.1	-7	-4.9
	임금근로자	63	56	60	4	7.1	-3	-4.8
	· 상용	242	240	258	18	7.5	16	6.6
	· 임시	187	187	195	8	4.3	8	4.3
	· 일용	54	52	63	11	21.2	9	16.7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 고용률

- 4월 전국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여자도 48.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4월 충북 고용률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2%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한 반면, 여자는 52.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충북의 고용률은 3월 이후 전국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성 고용이 활성화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변이계수를 통해 보면 전국(1.7)보다 충북(4.0) 계수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충북 남자(3.3)보다는 여자(5.1)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경기 및 계절적 요인에 쉽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변이계수=표준편차/산술평균 * 100
변이계수가 클수록 변동이 큰 것임

[전국 및 충북 고용률 추이]



구 분	2010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계	59.1	60.0	59.8	59.8	59.1	59.1	59.4	59.2	58.0	56.8	57.1	58.3	59.3
	남자	70.3	71.2	70.9	71.1	70.5	70.4	70.8	70.6	69.8	68.4	68.9	70.0	70.7
	여자	48.3	49.2	49.2	49.1	48.1	48.4	48.5	48.2	46.8	45.6	45.8	47.0	48.5
충북	계	61.3	61.5	62.1	61.8	61.4	61.0	60.8	59.9	57.2	54.8	56.0	58.8	61.4
	남자	71.4	71.3	72.1	72.4	71.5	71.3	71.2	70.6	68.5	64.7	66.6	68.8	71.2
	여자	51.6	52.1	52.5	51.5	51.6	51.1	50.9	49.6	46.3	45.2	45.9	49.2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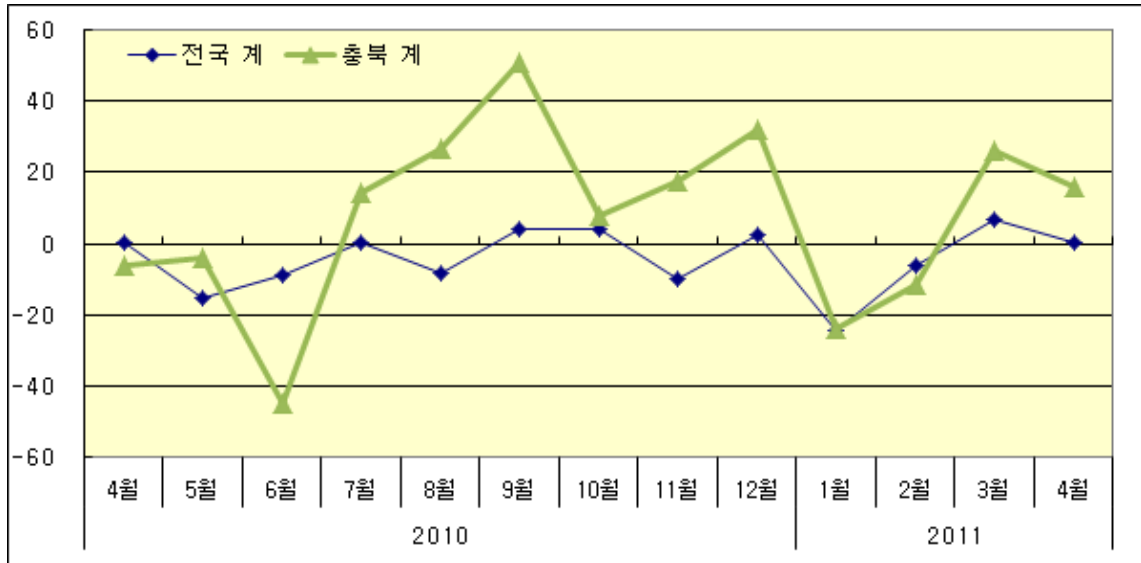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 실업자

- 4월 전국 실업자는 9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3%) 증가
- 4월중 실업자는 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16.0%)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13.5%) 감소한 반면, 여자는 9천명으로 4천명(73.1%) 증가
- 2011년 1/4분기 청년실업자(15~29세) 수는 8천명으로 총 실업자 수(20천명)의 40.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수준(9.0%)보다는 낮은 수준의 감소폭을 보임
- 경기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졸업과 1분기 기업의 채용으로 인해 실업자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청년 실업자가 8천명정도로 전년동월보다 7.4%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25.0% 큰폭의 감소로 나타남

[월별 실업자 증감률 추이]

구 분	2010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계	934	793	878	931	831	857	832	737	853	918	1,095	1,073	936
	남자	611	519	566	597	523	515	518	485	531	562	647	647	584
	여자	323	274	312	334	308	342	314	253	323	356	448	425	352
충북	계	16	14	11	15	14	15	15	16	17	19	21	19	18
	남자	10	10	7	8	8	8	8	8	8	8	11	11	9
	여자	5	4	3	8	6	8	7	8	9	11	11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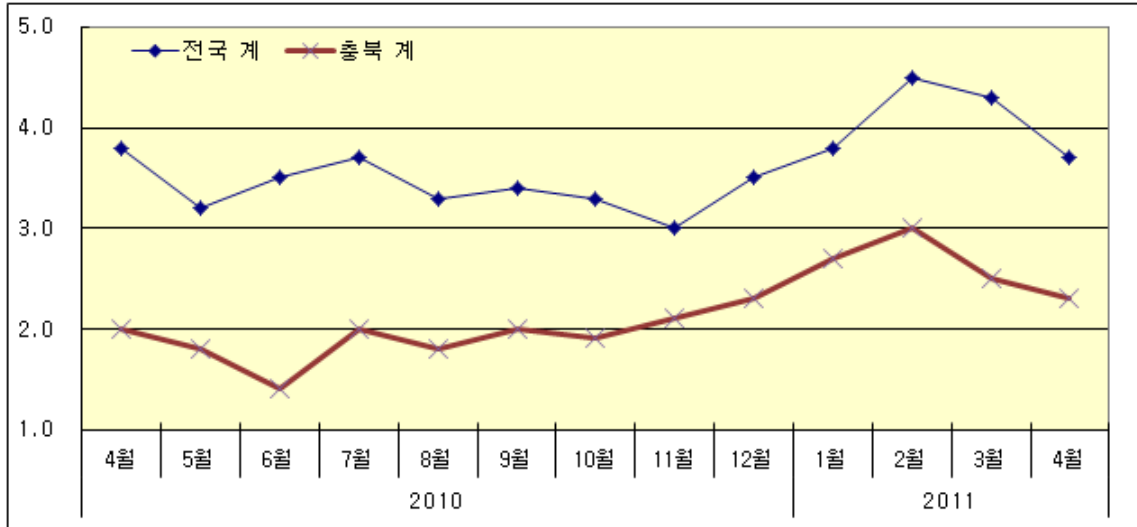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 실업률

- 4월 전국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 전국 실업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4.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반면, 여자는 3.4%로 0.3%p 상승
- 4월중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충북 실업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반면, 여자는 2.7%로 1.1%p 상승
- 1/4분기 실업률을 연령계층별로 보면 전년동분기대비 15~29세는 0.3%p 하락한 6.7%, 30~59세에서는 2.0%로 보합, 60세 이상에서는 1.0%p 상승한 2.4% 기록
 - 특히 청년(15~29세)실업률은 6.7%로 전국 평균은 0.7%p 하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0.3%p 하락하며 하락폭이 적었으며, 실업률도 전국 8.8%에 비하여 낮은 수치임
 - 다만 충북 총실업률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이 높은 편임을 감안할 때, 청년 고용시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충북의 실업률은 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월별 실업률 추이]



구 분	2010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계	3.8	3.2	3.5	3.7	3.3	3.4	3.3	3.0	3.5	3.8	4.5	4.3	3.7
	남자	4.2	3.5	3.9	4.1	3.6	3.6	3.5	3.3	3.7	3.9	4.5	4.4	4.0
	여자	3.1	2.6	3.0	3.2	3.0	3.3	3.0	2.5	3.2	3.6	4.5	4.1	3.4
충북	계	2.0	1.8	1.4	2.0	1.8	2.0	1.9	2.1	2.3	2.7	3.0	2.5	2.3
	남자	2.4	2.2	1.6	1.7	1.8	1.7	1.7	1.8	1.9	2.1	2.5	2.6	2.0
	여자	1.6	1.2	1.0	2.3	1.9	2.4	2.2	2.6	2.9	3.7	3.6	2.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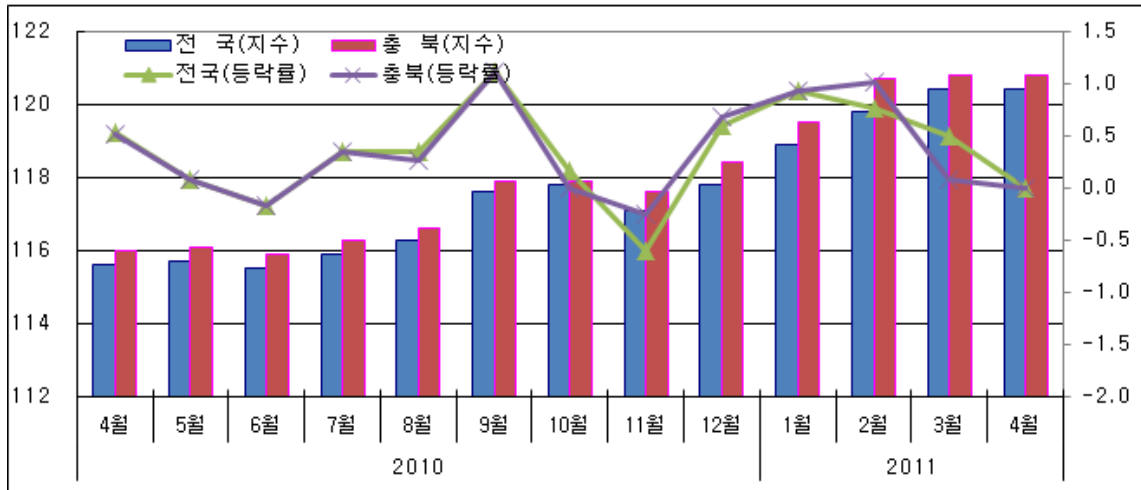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5) 물가

■ 소비자 물가

- 4월 충북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0.8(2005년=100)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4.1% 상승
 - 농축수산물에는 배추(-31.7%), 쇠고기(국산, -8.2%)가 하락하였으나, 마늘(74.2%), 사과(64.6%), 고춧가루(30.8%), 돼지고기(17.3%) 등의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6.7% 상승
 - 공업제품은 등유(28.1%), 금반지(24.0%), 경유(17.6%), 휘발유(12.5%), LPG(자동차용 9.3%) 등이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6.1% 상승
 - 개인서비스는 삼겹살(외식)(17.5%), 돼지갈비(외식)(14.3%), 미용료(14.1%), 보습화원비(10.4%), 대입학원비(종합)(9.8%) 등이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소비자물가 월별 상승률 추이]



주 : 막대그래프는 소비자물가지수, 실선그래프는 전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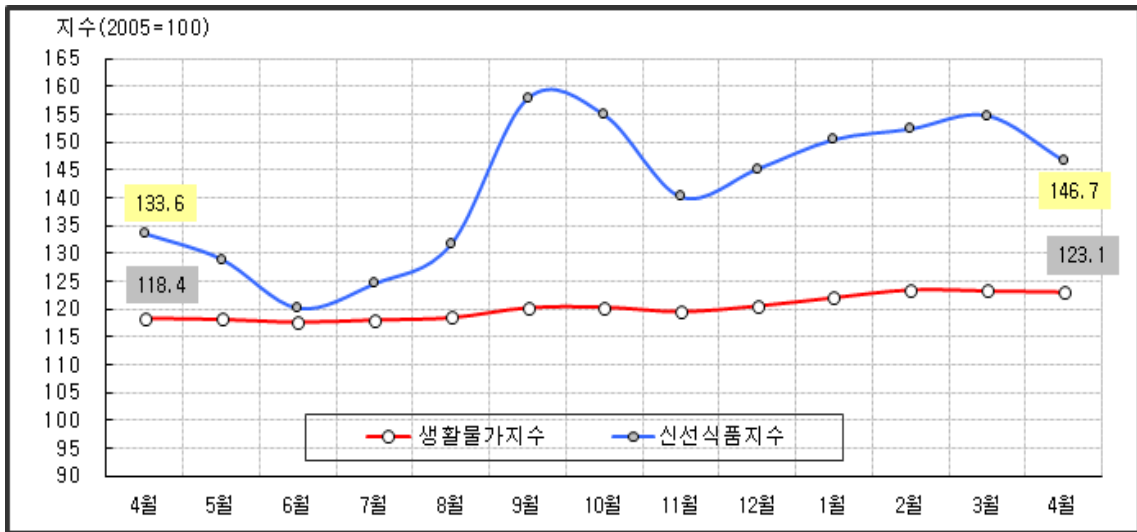
구 분	2010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 국(지수)	115.6	115.7	115.5	115.9	116.3	117.6	117.8	117.1	117.8	118.9	119.8	120.4	120.4
충 북(지수)	116.0	116.1	115.9	116.3	116.6	117.9	117.9	117.6	118.4	119.5	120.7	120.8	120.8
전국(등락률)	0.5	0.1	-0.2	0.3	0.3	1.1	0.2	-0.6	0.6	0.9	0.8	0.5	0.0
충북(등락률)	0.5	0.1	-0.2	0.3	0.3	1.1	0.0	-0.3	0.7	0.9	1.0	0.1	0.0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생활물가

-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123.1로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 식품은 전월대비 1.0% 하락, 전년동월대비 1.6% 상승
 -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5.1%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46.7로 전월대비 5.2% 하락, 전년동월대비 9.8% 상승
 - 신선어개는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
 -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15.5%, 전년동월대비 10.5% 각각 하락
 -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31.3% 각각 상승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추이]



구분	2009										2010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생활물가지수	118.4	118.2	117.7	118.1	118.5	120.3	120.4	119.6	120.6	122.1	123.5	123.3	123.1	
신선식품지수	133.6	129	120.2	124.6	131.7	157.9	154.9	140.2	145.2	150.5	152.4	154.8	146.7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기본분류 품목별 소비자 물가 동향]

(2011. 4월중)

	지수(2005=100)	전월비(%)	전년동월비(%)	비고
총 지 수	120.8	0.0	4.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3.5	-1.2	7.2	
곡 물	115.9	1.7	4.9	
육 류	124.8	0.1	4.8	
어개	156.2	-0.2	12.3	
낙 농 품	132.5	0.8	2.5	
유 지	130.3	1.6	0.2	
과 실	136.2	3.7	30.0	
채 소 · 해 조	140.0	-12.4	-6.6	
과자 · 당류식품	147.0	-0.1	7.5	
조미료 · 기타식품	147.9	0.9	20.5	
차	128.0	0.9	0.5	
음 료	138.7	-0.2	5.5	
주류 · 담배	103.1	0.0	0.1	
의복 · 신발	118.9	0.0	2.3	
주거 및 수도광열	116.6	0.5	4.9	
가구 집기 · 가사 용품	119.5	-0.1	3.2	
보건의료	113.0	0.4	2.9	
교 통	131.5	0.5	9.3	
통 신	93.3	0.0	-1.1	
교양 · 오락	103.4	0.0	2.5	
교 육	126.3	0.4	2.4	
외식 · 숙박	117.6	0.4	-0.9	
기타 잡비	140.6	-0.3	8.2	

■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결과(2011.5.23.)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1.5.23(월) 14:30 / 과천시사 1동(기획재정부) 대회의실
 - 참석부처 : 재정부 1차관(주재), 교과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문화부·방통위·공정위·국세청·통계청·금융위 (13개)
-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 금번 대책은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통신 생태계 변화가 야기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룸
- 서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주요 품목별 대응방안
 - 서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품목의 가격과 수급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 가공식품·공공요금의 가격 안정방안 등 하반기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OECD, 경제전망 발표”, 2011.5.23.(월).



▲ 청주시가 3일 물가조사모니터요원들과 함께 현명한 소비생활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고유가 극복,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건전소비 문화 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충청일보 2011.5.3.)

6) 대외거래

■ 수 출

- 4월 중 충북 수출은 11억 6천 1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8.7% 증가(전국 +25.1%)
 -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65.4%), 화공품(36.5%), 정보통신기기(158.0%), 철강제품(21.4%) 큰 폭으로 증가, 정밀기기(-16.5%) 수출 감소
 - 중화학공업품(38.3%), 경공업품(31.0%), 식료·직접소비재(61.5%), 원료·연료(38.1%)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중국(27.4%), 홍콩(14.6%), 미국(10.6%), 대만(10.5%), 일본(10.6%), EU(5.2%)가 전체 수출의 79%를 차지
 - 충북지역 4월 수출상승률(38.7%)은 전국(25.1%) 16개 시·도중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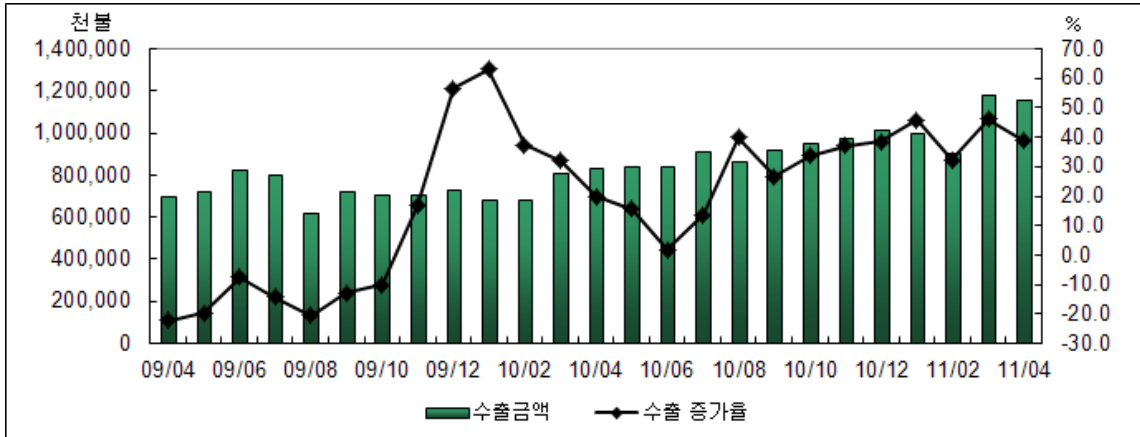
[충북 성질별 수출실적]

(단위 : 천달러, %)

품 목	2011. 4월		2011. 4월 누계		전년동기대비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당월	누계
1. 식 료 및 직접소비재	29,984	2.6	103,775	2.4	69.2	44.4
2. 원 료 및 연 료	9,138	0.8	31,672	0.7	39.6	27.9
3. 경 공 업 품	63,001	5.4	226,068	5.3	31.0	22.4
4. 중화학 공업품	1,058,736	91.2	3,880,717	91.5	38.5	42.1
가. 화 공 품	110,778	9.5	409,584	9.7	33.2	33.1
나. 철강제품	50,706	4.4	174,609	4.1	21.1	30.2
다. 기계류와 정밀기기	171,395	14.8	612,744	14.4	-7.5	-2.2
라. 전기·전자제품	662,414	57.1	2,453,137	57.8	63.6	65.6
마. 수 송 장 비	52,620	4.5	188,707	4.4	27.8	25.4
바. 기 타	10,823	0.9	41,937	1	36.8	40.0
총 계	1,160,859	100	4,242,232	100	38.7	40.9

자료 : 청주세관

{ 수출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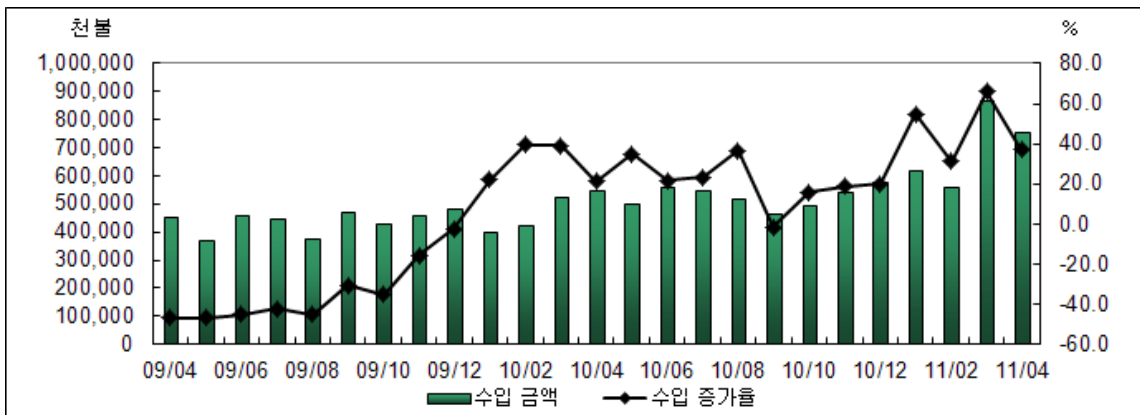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수입

- 4월 충북 수입은 7억 5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6.9% 증가(전국 +23.9%)
 - 정보통신기기(693.3%), 기계류(12.7%), 반도체(14.2%) 수입이 크게 증가, 기타수지(-5.3%), 동(-3.9%) 소폭 감소
 - 자본재(81.6%) 수입 크게 증가, 원자재(13.2%) 및 소비재(45.5%)도 증가
 - 일본(19.9%), 중국(27.3%), 미국(9.1%), EU(25.6%)가 전체 수입의 82%를 차지
 - 충북지역 수입상승률(36.9%)은 전국(23.9%) 16개 시·도중 5위

{ 수입액 추이 }



자료: 무역협회

[충북 성질별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품 목	2011. 4월		2011. 4월 누계		전년동기대비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당월	누계
1. 소 비 재	97,308	12.9	317,095	11.3	45.6	42.4
가. 곡 물	27,921	3.7	102,140	3.6	-1.8	17.1
나. 직접 소비자재	50,341	6.7	150,952	5.4	122.3	80.6
다. 내구 소비자재	12,288	1.6	42,539	1.5	14.9	19.6
라. 비내구 소비자재	6,758	0.9	21,465	0.8	33.2	31.9
마. 간이세율 적용분	0	0.0	0	0.0	0.0	0.0
2. 원 자 재	367,360	48.7	1,319,969	47.1	13.1	15.2
가. 연 료	1,853	0.2	17,161	0.6	-79.0	-13.8
나. 광 물	19,155	2.5	51,156	1.8	83.3	90.3
다. 경공업 원료	30,388	4.0	103,594	3.7	36.5	30.5
라. 유 지	418	0.1	1,249	0.0	-25.3	-34.7
마. 섬 유 류	12,803	1.7	53,507	1.9	14.7	33.8
바. 화 공 품	185,054	24.5	667,093	23.8	8.3	11.4
사. 철 강 재	22,182	2.9	79,903	2.9	39.3	36.0
아. 비철금속	55,467	7.4	206,522	7.4	-3.4	-6.1
자. 기 타	40,039	5.3	139,783	5.0	47.0	40.0
3. 자 본 재	289,344	38.4	1,165,171	41.6	81.6	118.5
가. 기계류와 정밀기기	57,695	7.7	210,034	7.5	12.1	46.6
나. 전기·전자기기	221,305	29.4	914,707	32.6	135.1	161.6
다. 수 송 장 비	7,776	1.0	31,901	1.1	-11.4	3.4
라. 기 타	2,569	0.3	8,529	0.3	-48.3	-9.9
총 계	754,011	100.0	2,802,235	100.0	36.9	47.4

자료 : 청주세관

■ 무역수지

- 4월 충북 무역수지 4억 7백만 달러 흑자 (전국 51억 3천 9백만달러 흑자)
- 누계 무역수지는 14억 4천만 달러 흑자

■ 충북산 농식품, 동남아 수출시장 공략

- 충북도는 오는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베트남-홍콩지역에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단』을 파견
 - 12개 수출업체 및 수출단지, 20여 품목 참여할 예정
- 세계 각국에서는 일본산 대체용으로 한국산을 수요 증가 추세
- 일본산 농식품의 주요 수입국인 홍콩, 베트남 지역에 틈새시장을 공략으로 충북의 농식품 수출시장의 활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7) 금융

■ 한국은행 화폐발행 및 환수

- 2월중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화폐발행액은 345억원
- 환수액은 489억원으로 월중 144억원 환수 초과(환수율 141.7%)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증 감 륜(%)		
	2월	전월	누 계	2월	누 계	전월비	전년동월비	누계비
화폐 발행액(A)	345	2,006	2,351	1,450	1,917	-82.8	-76.2	22.6
화폐 환수액(B)	489	118	607	265	462	314.4	84.5	31.4
발행 초과액 (A-B)	-144	1,888	1,744	1,185	1,455	-107.6	-112.2	19.9
환 수 율(B/A)	29.9	12.0	27.1	7.8	29.4	149.3	282.3	-8.0

※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

- 2월말 현재 도내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대한 예금 잔액은 587억원으로 월중 21억원 감소
 -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도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1,469억원에서 변동 없음

(말잔 기준 증감액, 억원)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비 고
	2월	전 월	누계	2월말잔액	2월	누계	
예 금	-21	113	92	587	81	105	
대출금	0	0	0	1,469	0	0	

※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 금융기관 여·수신

- 2월중 충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증가세가 크게 확대(11.1월중 +80억원 → 2월중 +3,491억원)
 -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이 예금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호조를 보이고 수시입출식예금(보통·기업자유)도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폭이 크게 확대
 -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운용회사 수신의 감소세가 지속된 데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수신이 가계의 학자금 수요 및 영농자금 인출 등으로 부진을 보이면서 감소폭 확대
- 2월중 여신도 증가세 확대(11.1월중 +839억원 → 2월중 +1,123억원)
 - 예금은행 대출은 주택관련대출 등 가계대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증가폭 확대
 -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큰 변동 없이 소폭 증가에 그침
- 2월말 현재 충북지역 금융기관 예대율(총여신잔액/총수신잔액)은 73.5%로 전월 대비 0.4%p 하락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말잔 기준 증감액, 억원)

구 분		2011년		2010년	잔 액(2011)	
		2월	전 월	2월	2월말	구성비(%)
예 금 (수신)	소 계(A)	3,490	80	5,136	320,146	100.0
	예 금 은 행	4,787	260	3,791	120,706	37.7
	비은행기관	-1,297	-180	1,345	199,440	62.3
대 출 (여신)	소 계(B)	1,123	839	537	235,175	100.0
	예 금 은 행	1,086	851	443	137,211	58.3
	비은행기관	37	-12	94	97,964	41.7

※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 신용보증현황

- 1월중 충북지역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은 207억원 감소(10.12월중 -162억원 → 11.1월중 -207억원)
 - 대출보증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제2금융권 보증 등도 감소세 지속
 -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음식, 숙박업 포함) 등 모든 업종에서 감소

[신용보증 현황]

(말잔 기준 증감액,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연중	1월	12월	1월	누계	1월말잔액
합 계		431	-49	-162	-207	-207	17,531
종류별	대출보증	254	-97	-87	-170	-170	13,274
	제2금융권보증	566	69	-23	-26	-26	3,477
	기타	-389	-21	-51	-10	-10	780
산업별	제조업	-506	-123	-118	-115	-115	9,167
	건설업	-59	-15	-13	-22	-22	1,285
	도소매업	572	62	-8	-30	-30	5,040
	기타	423	26	-23	-40	-40	2,039

※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 중소기업 대출

- 1월말 현재 충북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6조 9,758억 원으로 월중 693억원 증가하여 전월(-77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
 - 예금은행 총 대출금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51.1% → 51.2%)
- 은행그룹별로는 일반은행(-497억원 → +34억원), 특수은행(-273억원 → +659억원) 모두 증가 전환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현황]

(말잔 기준 증감액,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중소기업 대출 비중
	1월	누계	1월	전 월	누계	1월말 잔액	
예금은행총대출	-837	-837	850	-705	850	136,124	51.2
중 소 기 업 대 출	-328	-328	693	-770	693	69,758	
일반은행총대출	-1,038	-1,038	561	-663	561	74,227	44.2
중 소 기 업 대 출	-387	-387	34	-497	34	32,804	
특수은행총대출	201	201	291	-8	291	61,898	59.7
중 소 기 업 대 출	60	60	659	-273	659	36,954	

※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 자금사정

- 3월중 충북지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전자결제 조정전)은 0.99%로 전월(0.15%)보다 0.84%p 상승
 - 지역별로는 청주(+1.06%p)는 상승한 반면, 충주(-0.06%p) 및 제천(-0.07%p)은 하락
- 부도금액은 124.6억원으로 전월(15.4억원)보다 109.2억원 증가
- 부도업체(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수는 2개로 전월(0개)보다 증가

[어음 부도율 추이]

(전자결제액 조정전 금액기준, %)

구 분	2010년		2011년		비 고
	연중	3월	2월	3월	
충 북	0.43	0.41	0.15	0.99	
청 주	0.40	0.53	0.14	1.20	
충 주	0.49	0.01	0.22	0.16	
제 천	0.55	0.01	0.18	0.11	
지 방 평 균	0.42	0.34	0.18	..	
전 국	0.15	0.11	0.08	..	
부도금액(억 원)	485.0	46.2	15.4	124.6	
부도업체수(개)	11323.9	1125.6	1013.9	1264.2	

※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2. 국내 경제동향

■ 민간소비

- 2011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속보치)는 전년동기비로 3.0% 증가하면서 2010년 4/4분기 2.9% 증가세 지속, 전기비(계절조정)로는 0.5% 증가

	2008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3/4	4/4 ^p	1/4 ^p
민간소비(전년동기비,%)	0.2	0.0	-1.1	0.4	5.6	4.1	6.6	3.5	3.6	2.9	3.0
(계절조정 전기비, %)	-	-	3.7	1.4	0.9	-	0.5	0.7	1.4	0.3	0.5

- 3월 비내구재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내구재와 준내구재가 모두 증가하여 소비재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하면서 전월 0.8% 감소에서 증가 전환
 - 승용차 판매가 전월 3.0% 증가에서 금월 19.0% 증가하며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내구재 소비는 전월 9.1% 증가에서 금월 14.9% 증가하며 증가폭 확대
 - 준내구재는 전월 2.0% 증가에서 금월 4.6%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비내구재는 전월 7.0% 감소에서 금월 0.4% 감소하며 감소폭이 축소
 - 1/4분기 소비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전기 5.1% 증가세 지속

(전년동기(월) 대비, %)

	2009				2010					2011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3/4	4/4 ^p	1/4 ^p	2월 ^p	3월 ^p
소비재 판매 (계절조정 전월비)	2.6	1.6	2.8	10.8	6.6	9.7	4.9	7.5	5.1	4.9	-0.8	4.9
- 내구재	8.1	4.0	7.9	33.9	14.9	29.6	5.6	17.0	10.6	12.8	9.1	14.9
· 승용차 판매	21.8	18.4	24.1	76.9	11.1	48.9	-2.1	12.0	0.1	10.2	3.0	19.0
- 준내구재	0.3	0.3	-0.7	3.4	6.8	2.5	6.2	6.6	11.1	6.0	2.0	4.6
- 비내구재	1.2	1.0	1.9	4.1	2.2	3.2	3.3	3.0	-0.7	0.6	-7.0	-0.4

* 내구재 : 승용차가전가구통신기기 등, 준내구재 : 의류의복신발 등
비내구재 : 의약품화장품, 연료, 음식료품담배 등

- 업태별로는 백화점 판매가 전월 2.8% 증가에서 금월 10.2%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대형마트도 전월 11.0% 감소에서 금월 2.0% 증가 전환
- 전문상품소매점은 전월 1.9% 증가에서 금월 4.1% 증가하며 증가폭 확대

(전년동기(월)비, %)

	2009				2010					2011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3/4	4/4 ^p	1/4 ^p	2월 ^p	3월 ^p
-백화점	3.3	0.4	4.2	9.1	8.8	7.5	9.2	7.4	10.5	11.5	2.8	10.2
-대형마트	-2.0	-2.9	-3.4	3.2	4.4	5.4	4.1	7.6	0.8	3.5	-11.0	2.0
-전문상품소매점	2.9	2.6	3.5	12.6	5.6	9.7	1.8	7.3	4.2	4.3	1.9	4.1

* 전문상품소매점 : 소수(1-3개)의 전문상품을 소매하는 점포

■ 설비투자

- 2011년 1/4분기 설비 투자(GDP 속보치)는 전년동분기 대비 12.0% 증가하여 전분기(15.9%)대비 증가폭 축소
 - 계절조정 전분기비는 전분기의 1.0% 감소에서 금분기 0.8% 감소하며 감소세 지속
- (전년동기비, %)

	2008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3/4	4/4 ^p	1/4 ^p
·설비투자(국민계정)	-1.0	-9.1	-17.3	-7.0	13.3	25.0	29.1	30.5	26.6	15.9	12.0
(계절조정 전분기비)	-	-	9.0	10.8	5.3	-	2.8	7.9	5.6	-1.0	-0.8
-기계류	-1.8	-13.0	-21.5	-14.8	10.0	30.8	30.0	35.3	38.9	20.5	-
-운수장비	1.8	-9.8	-2.9	22.9	24.2	6.7	24.2	15.6	-6.6	0.6	-

- 3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0.3% 증가하며 전월(+1.4%) 증가보다 증가폭 축소
 - 기계류는 전월 0.4% 증가에서 금월 2.0% 감소하며 감소 전환
- (전년동기비, %)

	2008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p	1/4 ^p	1월	2월 ^p	3월 ^p
설비투자지수	-3.0	-8.0	10.2	25.1	30.0	29.5	29.3	13.6	6.6	21.2	1.4	0.3
-기계류	-4.2	-12.9	8.8	30.5	32.5	37.1	37.4	17.1	6.8	26.6	0.4	-2.0

- 3월 중 국내기계수주는 전월 26.7% 증가에서 금월 14.2% 증가하며 증가폭 축소
 - 3월 국내기계수주의 공공부분은 전월 14.0% 증가에서 금월 6.3%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민간부분은 전월 27.0% 증가에서 금월 16.9% 증가세 지속

(전년동기비, %)

	2008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p	1/4 ^p	1월 ^p	2월 ^p	3월 ^p
국내기계수주	-13.8	-11.8	20.0	11.2	10.3	24.7	-0.2	11.3	19.5	19.7	26.1	14.2
- 공공	5.0	61.7	-27.2	-37.9	-43.7	-42.2	-71.7	31.4	-10.3	-31.5	14.0	-6.3
- 민간	-15.5	-16.6	35.2	21.8	22.6	35.5	22.0	7.8	22.6	25.1	27.0	16.9

■ 건설 투자

- 2010년 1/4분기 건설 투자(GDP 속보치)는 전년동기대비 11.9% 감소하고, 계절조정 전기비로는 6.7% 감소를 기록하여, 여전히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년동기비, %)

	2008	2009				2010 ^p					2011
	연간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3/4	4/4 ^p	1/4 ^p
·건설투자(국민계정)	-2.8	3.4	5.1	3.2	4.0	-1.4	4.3	-2.3	-3.1	-2.9	-11.9
(계절조정 전기비)	-	-	1.8	-1.2	0.7	-	2.0	-4.2	-0.8	-1.0	-6.7
-건물건설	-4.6	-2.3	-2.4	0.2	2.4	-2.9	4.5	-5.1	-6.3	-2.8	-
-토목건설	-0.2	11.6	15.7	8.2	5.6	0.5	4.0	1.0	1.7	-2.9	-

- 3월 국내건설기성(불변)은 토목부문, 건축부문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전월 20.0% 감소에서 금월 9.2%로 감소폭 축소
 - 건축부문이 전월 20.0% 감소에서 금월 13.3% 감소로 감소세가 축소되었고, 토목부문도 전년동월대비 전월 17.3% 감소에서 금월 3.7% 감소로 축소

(전년동기비, %)

	2008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p	1/4 ^p	2월 ^p	3월 ^p
건설기성(불변)	-8.1	1.7	5.0	-3.3	3.4	-4.3	-6.8	-4.3	-13.1	-20.0	-9.2
- 건축	-10.3	-6.5	0.74	-7.2	1.5	-7.7	-12.3	-8.5	-16.0	-22.0	-13.3
- 토 목	2.2	-5.7	11.3	2.2	6.0	0.6	1.9	1.2	-9.0	-17.3	-3.7

○ 3월 토목부문이 24.7% 감소, 건축부문이 61.5% 증가하면서 금월 건설수주(경상)는 전월 16.7% 감소에서 증가 전환하며 13.7% 증가 기록

(전년동기비, %)

	2008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p	1/4 ^p	2월 ^p	3월 ^p
건설수주(경상)	-7.6	3.0	11.6	-18.7	-1.6	-6.7	-3.6	-40.2	-12.8	-16.7	13.7
- 건축	-15.4	-16.0	17.0	-9.9	8.3	55.3	-1.3	-46.4	-9.7	-14.6	61.5
- 토 목	13.5	41.9	3.7	-29.5	-12.4	-49.7	-7.0	-29.9	-17.0	-19.3	-24.7

■ 산업활동

○ 3월 생산자출하지수는 수출, 내수 제품 출하가 모두 증가하였고, 전월 10.3% 증가에서 금월 10.5% 증가로 증가폭 지속

- 내수 출하는 전월(6.0%) 증가에서 금월(5.1%) 증가하며 증가폭 축소
- 수출 출하는 전월(16.1%) 증가에서 금월(18.0%) 증가하며 증가폭 확대
- 평균가동률은 전월(82.4%)보다 증가한 82.5% 기록

(전년동월(기)비, %)

	2008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p	1/4 ^p	2월 ^p	3월 ^p
출하 지수	2.6	-1.7	14.4	21.8	17.2	9.9	11.9	11.9	10.3	10.5
· 내수	-0.4	-1.8	11.5	21.2	15.4	6.6	8.3	7.2	6.0	5.1
· 수출	7.2	-1.7	18.2	22.5	19.7	14.5	16.9	18.5	16.1	18.0
평균 가동률(%)	77.5	74.6	81.2	80.5	83.0	81.2	80.8	83.2	82.4	82.5
생산 능력	5.1	3.1	7.2	5.1	5.8	7.8	7.4	6.7	6.9	6.4

3. 국제 경제동향

■ 환율

- 4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 저금리 정책 지속 발표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25.2원 하락한 증가 1,071.5원으로 마감
 - 전년말 대비 원화가치는 달러 대비 5.9% 절상됨
 - 원/엔 환율은 일본 대지진 영향과 아시아 통화의 동반 강세속에서 엔화 약세로 11.5원 하락한 1,314.1원으로 하락

	2008 연말	2009 연말	2010				2011				절상률* (%)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원/달러 환율	1259.5	1164.5	1140.2	1125.3	1159.7	1134.8	1121.5	1128.7	1096.7	1,071.5	5.9
원/엔 환율	1396.8	1264.5	1368.1	1394.9	1379.0	1393.6	1367.9	1382.2	1325.6	1314.1	6.1

* 전년말 대비, 한국 종가(15:00) 기준

■ 국제유가

- 4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리비아 등 중동 정세불안이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큰 폭 상승
 - 4월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 108.5달러보다 상승한 115.8달러를 기록

(단위: 평균가격, \$/B)

구분	08년	09년	2010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Dubai	94.3	61.9	83.6	76.8	74.1	72.6	74.1	75.2	80.3	83.6	88.9	92.5	100.5	108.5	115.8	
Brent	97.5	61.7	84.8	75.2	74.9	75.7	77.2	77.9	83.2	85.8	91.8	96.8	104.1	114.6	123.3	
WTI	99.9	61.9	84.5	73.7	75.3	76.3	76.6	75.3	81.9	84.4	89.2	89.5	89.6	103.0	110.0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안정과 정유사 가격할인 요인으로 4월 휘발유 가격은 1,951원, 경유 가격은 1,793원으로 상승

(평균가격, 원/L)

	2008	2009	2010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휘발유	1,692	1,601	1,725	1,732	1,715	1,722	1,716	1,700	1,700	1,716	1,771	1,825	1,850	1,939	1,951	
경유	1,614	1,397	1,507	1,522	1,509	1,518	1,513	1,499	1,500	1,518	1,570	1,621	1,652	1,756	1,793	

자료 : 한국석유공사

참고	경제교육 안내 및 수강 방법
<p>■ 충북경제교육센터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조례3069호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1월 1일 충북경제교육센터로 지정 ○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에게 폭넓고 다양한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생활에 대한 도민의 합리적 의사 결정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p>■ 충북경제교육센터 비전 및 운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게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경제”를 모토로 도민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경제생활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통해 충북도민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 폭 넓고 다양한 경제교육 전문강사 확보 및 양성을 통해 양질의 경제교육 제공 · 누구나 쉽게 경제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도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는 경제교육 실시 ○ 충북 경제교육의 중심으로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데 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육 소외계층 대상 교육을 통해 경제적 무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사전 예방 · 충북경제의 비전과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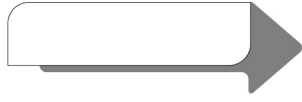
■ 충북경제교육센터 주력 추진 사업

- 도민경제교실
 - 여성·주부, 교사, 노동자, 학부모, 시민단체, 군인, 경찰 등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과 다문화가정, 장애우, 저소득층, 노인 등 경제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에게 시사경제, 충북경제, 녹색경제, 자산관리, 자녀경제교육, 소비자구제, 세테크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맞춤형 경제교육 제공
-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 충북 소재 각급 학교 및 어린이·청소년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경제교육 제공
 - 단일 혹은 연속 주제로 1회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형 경제교육, 1회 혹은 2회에 걸쳐 3~5시간 동안 진행되는 체험형 경제교육, 전통시장 체험 및 경제캠프, 유아경제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 2008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경제교육연구시범학교로 지정·운영
- 교사경제교육 직무연수
 - 여름방학 이용 초·중·고등 교사 대상으로 32시간 과정의 직무연수 진행

■ 교육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수시(교육희망일 최소 1개월 전 신청 권장)
- 제출서류 : 별도양식 없이 희망 교육일자, 인원, 장소, 주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송부하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 교육비 : 무료
- 신청방법 : 전화(043-220-1185), e-mail(adcd@cri.re.kr), 홈페이지(<http://cbeec.cri.asia>) 게시판





부 록

1. 중복 경계일지
2. 중복주요 경계지표

1. 충북 경제 일지

5. 2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통계청 발표)
5. 6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통계청 발표)
5. 11	경제활동참가율 62.9%, 고용률 61.4%, 실업률 2.3%(통계청 발표)
5.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3개 시·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쳐온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이, 기능지구로 충북 오송·오창(청원군)과 충남 연기 등이 선정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50개중 절반은 본원이 있는 대전에 배치, 나머지는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광주와 경북(대구·포항·울산) 등에 분산 배분
5. 16	알앤엘바이오, 알앤엘삼미 흡수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산업부문의 매출규모와 수익구조 개선과 시술 시너지효과 창출, 효율적인 내부 관리를 통한 수익 확대 위해 합병
5. 16	정·산·학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에 따라 도내 12개 대학은 결혼, 저출산에 대한 인구교육 특강 실시와 대학과정에 저출산 대책 관련 교양과목 개설 - 기업은 직원대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 솔선이행과 출산장려 홍보(소식지, 제품에 문구 표기 등) 노력, 패밀리데이 등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5. 17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테스트베드 선정으로 충남북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화 촉진으로 수출 산업화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효율성 확대, 연구력 강화 등 적극적인 수익창출 사업을 목표로 태양광 부품 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거점 마련의 계기
5. 17	도내 수출액은 11억6천1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38.7% 증가(청주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세 품목인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화공품 등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
5. 19	충북지역 어음부도율은 0.27%로 전월(0.99%) 보다 0.72%p 하락(한국은행 충북본부)
5. 25	'오송역세권 개발' 성공 추진 포럼 개최(충북발전연구원) '오송역세권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KTX 경제권 포럼'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회의실에서 개최
5. 26	충북 청주 '누에산업' 지역연구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의 누에산업이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구사업(RIS)에 선정돼 3년간 해마다 최대 6억 원까지 지원

2. 충북 주요경제지표

1) 경기

■ 충북경기선 · 동행종합지수

(2005=100, %, %p)

	종합선행지수				종합동행지수			
	선행지수	전월(기)비	전년동월비	전월(기)차	동행지수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전월(기)비
1993	67.7	6.4	6.1	2.1	55.5	7.4	99.0	-0.8
1994	71.4	5.5	5.4	-0.7	60.4	8.7	99.1	0.1
1995	77.0	7.9	7.4	2.1	66.0	9.3	100.1	1.0
1996	79.9	3.7	3.8	-3.6	71.4	8.3	102.3	2.1
1997	84.0	5.1	4.8	1.0	74.0	3.6	102.9	0.7
1998	81.6	-2.9	-2.5	-7.3	70.1	-5.3	95.8	-6.9
1999	84.0	2.9	2.5	5.0	74.7	6.6	97.9	2.2
2000	88.3	5.2	4.8	2.3	83.1	11.3	102.4	4.6
2001	87.7	-0.7	-0.3	-5.1	85.3	2.6	99.0	-3.3
2002	94.0	7.2	6.5	6.7	91.4	7.2	100.8	1.7
2003	96.0	2.0	2.2	-4.3	94.2	3.1	99.4	-1.3
2004	100.0	4.2	3.9	1.7	99.4	5.5	101.2	1.8
2005	100.0	0.0	0.3	-3.7	100.0	0.6	98.9	-2.2
2006	103.6	3.6	3.1	2.8	103.6	3.6	99.9	1.0
2007	105.7	2.0	2.0	-1.0	107.0	3.2	100.7	0.8
2008	108.2	2.4	2.3	0.3	109.0	1.9	100.5	-0.2
2009	108.4	0.2	0.7	-1.6	108.9	0.0	98.2	-2.3
2010	112.2	3.5	3.0	2.3	115.0	5.6	100.7	2.5
2009. II	107.2	-0.8	-1.0	-3.6	108.3	-0.2	98.0	-2.4
III	109.7	1.4	1.9	0.2	109.5	0.0	98.5	-2.3
IV	111.5	3.3	4.0	3.2	111.0	1.4	99.1	-1.2
2010. I	112.3	6.7	4.6	6.9	113.2	5.8	100.3	3.0
II	113.1	5.5	4.6	5.6	115.4	6.6	101.4	3.5
III	112.6	2.6	2.8	0.9	116.2	6.1	101.3	2.9
IV	111.0	-0.4	-0.1	-4.1	115.2	3.8	99.7	0.6
2011. I	114.9	1.6	2.5	1.5	118.8	1.3	101.5	0.8
2010. 3	112.3	-0.1	4.7	-0.3	114.0	0.7	100.8	0.5
4	112.7	0.4	5.3	0.1	114.9	0.8	101.3	0.5
5	113.1	0.3	5.9	0.1	115.4	0.4	101.5	0.2
6	113.4	0.3	5.6	-0.1	115.8	0.3	101.5	0.1
7	113.4	0.0	5.3	-0.5	116.0	0.2	101.5	-0.1
8	112.7	-0.6	3.9	-1.3	116.3	0.3	101.5	0.0
9	111.7	-0.8	2.3	-1.4	116.1	-0.2	101.0	-0.5
10	110.9	-0.7	0.5	-1.2	115.4	-0.6	100.1	-0.9
11	110.8	-0.1	-0.3	-0.5	114.9	-0.4	99.4	-0.7
12	111.4	0.5	-0.2	0.1	115.4	0.5	99.6	0.2
2011. 1	113.0	1.5	1.0	1.2	117.8	2.0	100.9	1.3
2	114.8	1.6	2.4	1.4	118.7	0.8	101.4	0.5
3	116.9	1.8	4.2	1.8	119.9	1.0	102.1	0.7

자료 : 충북발전연구원

기업경기실사조사

(기준치=100. %)

	전국 BSI				충북 BSI			
	제조업	전년동월(기)비	비제조업	전년동월(기)비	제조업	전년동월(기)비	비제조업	전년동월(기)비
2007	85	2.3	86	4.0	78	-0.2	80	13.1
2008	74	-12.8	74	-14.2	70	-9.9	63	-21.0
2009	75	0.6	74	0.2	76	8.7	69	9.9
2010	97	30.6	88	19.0	97	26.9	79	13.5
2007. II	86	2.4	88	4.0	79	-5.2	79	23.6
III	86	10.7	86	12.2	81	14.6	82	14.0
IV	86	3.2	87	2.4	79	-0.8	79	1.7
2008. I	83	2.5	81	-2.4	76	3.7	69	-13.3
II	83	-3.9	79	-9.5	73	-6.8	64	-18.2
III	75	-13.2	73	-14.8	74	-8.6	65	-20.4
IV	56	-35.5	61	-29.6	58	-26.7	54	-32.1
2009. I	49	-41.0	60	-26.0	52	-31.7	53	-23.6
II	73	-11.6	74	-7.1	77	5.0	67	4.7
III	86	14.7	77	5.0	84	14.0	76	16.9
IV	90	61.7	85	38.8	92	59.5	81	50.9
2010. I	99	101.4	87	46.4	98	89.7	80	50.9
II	104	41.4	89	20.8	103	33.3	80	18.3
III	98	14.0	85	10.9	97	15.0	77	1.3
IV	93	3.3	90	6.3	91	-1.1	79	-2.5
2011. I	91	-7.8	81	-7.3	86	-12.2	71	-11.3
2010. 4	103	49.3	90	26.8	99	33.8	85	32.8
5	103	39.2	90	21.6	102	27.5	82	17.1
6	105	35.1	88	14.5	104	35.1	77	5.9
7	103	27.2	89	17.1	102	27.5	80	11.1
8	98	19.8	83	17.1	96	22.9	74	6.7
9	92	2.2	84	7.7	94	4.4	76	-6.2
10	94	2.2	89	6.0	92	1.1	79	-6.0
11	92	3.4	91	12.3	92	2.2	76	0.0
12	92	3.4	90	1.1	89	-6.3	83	0.0
2011. 1	91	-2.2	85	-1.2	87	-9.4	75	-2.6
2	88	-6.4	79	-8.1	85	-12.4	69	-11.5
3	93	-6.1	80	-7.0	87	-11.2	69	-10.4
4	98	-4.9	85	-5.6	92	-7.1	73	-14.1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2) 고용

(천명, %, %p)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2001	1,156	0.5	691	0.1	59.8	-0.2	465	1.1
2002	1,159	0.3	700	1.3	60.4	0.6	459	-1.3
2003	1,160	0.1	689	-1.6	59.4	-1.0	471	2.6
2004	1,162	0.1	696	1.0	59.9	0.5	466	-1.1
2005	1,175	1.1	698	0.3	59.4	-0.5	477	2.3
2006	1,182	0.6	701	0.4	59.3	-0.1	481	0.8
2007	1,185	0.3	710	1.2	59.9	0.6	476	-1.0
2008	1,199	1.2	726	2.3	60.5	0.6	474	-0.4
2009	1,219	1.6	739	1.8	60.6	0.1	480	1.3
2010	1,236	1.4	753	1.9	61.0	0.4	482	0.4
2009. II	1,216	1.6	761	2.3	62.5	0.4	456	0.4
III	1,221	1.6	759	1.8	62.2	0.2	462	1.3
IV	1,225	1.6	741	0.8	60.5	-0.5	484	2.8
2010. I	1,225	1.6	741	0.8	60.5	-0.5	484	2.8
II	1,234	1.5	774	1.7	62.7	0.2	460	0.9
III	1,238	1.4	775	2.1	62.6	0.4	463	0.2
IV	1,241	1.3	752	1.5	60.6	0.1	489	1.0
2011. I	1,245	1.6	724	-2.3	58.1	-2.4	521	7.6
2010. 4	1,233	1.6	772	3.3	62.6	1.1	461	-1.3
5	1,234	1.5	773	1.6	62.6	0.0	461	1.2
6	1,235	1.4	778	0.5	63.0	-0.5	457	2.9
7	1,237	1.4	779	2.3	63.0	0.6	458	-0.1
8	1,238	1.4	774	2.0	62.5	0.4	464	0.4
9	1,238	1.2	771	1.8	62.2	0.3	468	0.3
10	1,239	1.2	769	0.5	62.0	-0.5	471	2.6
11	1,241	1.3	760	-0.3	61.2	-1.0	481	3.9
12	1,242	1.2	728	4.4	58.6	1.8	514	-3.0
2011. 1	1,243	1.1	700	1.4	56.3	0.2	543	0.7
2	1,244	1.1	719	1.8	57.8	0.4	526	0.4
3	1,246	1.2	752	1.6	60.4	0.3	494	0.6
4	1,247	1.1	784	1.6	62.9	0.3	463	0.4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천명, %)

	취업자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2001	667	0.8	-	-	-	-	-	-
2002	682	2.2	-	-	-	-	-	-
2003	668	-2.1	-	-	-	-	-	-
2004	677	1.4	92	0.9	123	-	462	-
2005	682	0.8	93	0.8	123	-0.4	467	1.1
2006	686	0.5	93	4.8	119	-2.7	473	1.3
2007	694	1.1	98	11.9	123	3.2	473	-0.1
2008	710	2.3	109	-2.5	131	5.9	470	-0.6
2009	723	1.9	107	-1.8	145	10.8	472	0.4
2010	737	1.9	98	-8.4	150	3.4	489	3.6
2009. II	744	2.4	124	-3.9	144	11.8	476	1.5
III	748	2.2	126	4.5	146	11.1	476	-0.9
IV	728	1.3	99	-2.2	150	8.1	479	0.2
2010. I	728	1.3	99	-2.2	150	8.1	479	0.2
II	761	2.3	112	-9.7	149	3.5	500	5.0
III	760	1.6	116	-7.9	150	2.7	494	3.8
IV	736	1.1	97	-2.0	151	0.7	489	2.1
2011. I	704	-3.3	69	-30.3	152	1.3	482	0.6
2010.4	756	3.5	105	-9.9	152	6.9	498	5.9
5	759	1.7	114	-9.8	148	1.3	498	4.9
6	767	1.7	117	-9.1	146	2.6	504	4.3
7	764	2.1	114	-7.9	148	-1.3	503	5.7
8	760	1.6	118	-7.6	151	4.9	491	3.1
9	756	1.2	115	-8.3	150	3.4	490	3.0
10	754	0.4	115	-8.7	149	-1.1	490	3.2
11	743	-0.7	103	-6.5	150	-0.2	491	0.5
12	711	4.0	72	19.0	153	3.4	486	2.2
2011.1	681	2.5	52	-3.2	154	3.0	475	3.0
2	697	2.2	65	0.9	150	2.0	482	2.4
3	733	1.0	92	8.2	152	0.0	489	0.0
4	766	1.3	111	5.2	151	-0.9	505	1.4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천명, %, %p)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2001	57.7	-0.1	24	-4.0	3.5	-0.1
2002	58.8	1.1	18	-25.0	2.6	-0.9
2003	57.5	-1.3	22	20.0	3.1	0.5
2004	58.3	0.8	19	-12.0	2.7	-0.4
2005	58.1	-0.2	16	-17.9	2.2	-0.5
2006	58.1	0.0	15	-4.5	2.1	-0.1
2007	58.5	0.4	16	6.0	2.2	0.1
2008	59.2	0.7	16	0.6	2.2	0.0
2009	59.4	0.2	15	-3.8	2.1	-0.1
2010	59.6	0.2	16	6.7	2.2	0.1
2009. II	55.7	0.1	19	20.9	2.8	0.5
III	61.2	0.5	17	1.2	2.2	0.0
IV	61.2	0.3	12	-15.9	1.5	-0.4
2010. I	59.4	-0.1	14	-22.4	1.8	-0.6
II	59.4	-0.1	14	-22.4	1.8	-0.6
III	61.7	0.5	13	-23.5	1.7	-0.5
IV	59.3	-1.9	16	33.3	2.1	0.6
2011. I	56.6	-2.8	20	42.9	2.7	0.9
2010. 4	58.9	1.4	16	-7.7	2.0	-0.8
5	61.3	1.2	14	-4.2	2.0	-0.3
6	61.5	0.1	11	-44.5	1.8	-0.1
7	62.1	0.4	15	14.3	1.4	0.3
8	61.8	0.1	14	26.5	2.0	-0.1
9	61.4	0.2	15	51.0	1.8	0.3
10	60.8	-0.3	15	8.0	1.9	0.6
11	59.9	-1.5	16	17.3	2.1	0.3
12	57.2	-3.9	17	30.2	2.3	0.5
2011. 1	54.8	-0.9	19	-23.8	2.7	0.8
2	56.0	1.9	21	-9.7	3.0	-0.7
3	58.8	3.3	19	26.2	2.5	-0.9
4	61.4	2.5	18	26.2	2.3	0.3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3) 물가

■ 소비자물가

(2005=100, %)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신선식품물가		
		전월(기)대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대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대비	전년동월(기)비
2001	89.1	3.6	-	86.4	4.7	-	81.1	5.8	-
2002	90.7	1.8	-	88.0	1.9	-	88.2	8.8	-
2003	93.9	3.5	-	91.8	4.3	-	94.8	7.4	-
2004	97.0	3.3	-	95.9	4.5	-	100.5	6.1	-
2005	100.0	3.1	-	100.0	4.3	-	100.0	-0.5	-
2006	102.3	2.3	-	102.8	2.8	-	101.0	1.0	-
2007	105.1	2.7	-	106.2	3.3	-	109.9	8.8	-
2008	110.5	5.1	-	112.8	6.2	-	100.8	-8.3	-
2009	113.1	2.4	-	114.7	1.7	-	108.8	7.9	-
2010	116.5	3.0	-	118.5	3.3	-	132.8	22.1	-
2009. II	113.1	1.2	2.2	114.8	1.7	1.0	114.4	3.9	15.3
III	113.8	0.6	1.5	115.6	0.7	0.4	106.9	-6.6	7.1
IV	113.8	0.0	2.3	115.4	-0.2	2.3	103.6	-3.1	6.0
2010. I	115.4	1.4	3.2	117.5	1.8	4.1	125.6	21.2	14.0
II	116.0	0.5	2.6	118.1	0.5	2.9	127.6	1.6	11.5
III	116.9	0.8	2.8	119.0	0.7	2.9	138.1	8.2	29.2
IV	118.0	0.9	3.7	120.2	1.0	4.2	146.8	6.3	41.7
2011. I	120.3	2.0	4.2	123.0	2.3	4.7	152.6	4.0	21.5
2010. 4	116.0	0.5	2.6	118.4	0.8	3.1	133.6	6.6	13.5
5	116.1	0.1	2.7	118.2	-0.2	2.9	129.0	-3.4	9.3
6	115.9	-0.2	2.5	117.7	-0.4	2.5	120.2	-6.8	11.7
7	116.3	0.3	2.5	118.1	0.3	2.6	124.6	3.7	16.3
8	116.6	0.3	2.4	118.5	0.3	2.4	131.7	5.7	22.1
9	117.9	1.1	3.4	120.3	1.5	3.8	157.9	19.9	49.4
10	117.9	0.0	3.8	120.4	0.1	4.4	154.9	-1.9	48.7
11	117.6	-0.3	3.3	119.6	-0.7	3.8	140.2	-9.5	40.1
12	118.4	0.7	3.8	120.6	0.8	4.2	145.2	3.6	36.3
2011. 1	119.5	0.9	4.3	122.1	1.2	5.0	150.5	3.7	32.4
2	120.7	1.0	5.1	123.5	1.1	5.8	152.4	1.3	29.4
3	120.8	0.1	4.7	123.3	-0.2	4.9	154.8	1.6	23.5
4	120.8	0.0	4.1	123.1	-0.2	4.0	146.7	-5.2	9.8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4) 산업동향

■ 광공업 생산 · 출하 · 재고지수

(2005=100, %)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지수	전년동월(기)비	지수	전년동월(기)비	지수	전년동월(기)비
2001	80.7	1.3	82.1	-2.9	77.3	3.0
2002	90.3	11.8	91.4	11.4	81.3	5.2
2003	93.4	3.5	95.9	4.9	95.4	17.4
2004	106.1	13.6	109.9	14.6	102.3	7.2
2005	100.0	-5.8	100.0	-9.0	100.2	-2.0
2006	110.2	10.2	111.2	11.2	124.3	24.1
2007	121.2	10.0	123.7	11.2	143.0	15.0
2008	124.7	2.9	129.6	4.8	194.6	36.1
2009	132.9	6.6	141.9	9.5	149.1	-23.4
2010	153.5	15.5	164.1	15.6	167.8	12.5
2009. II	136.0	4.0	144.0	7.5	160.6	-12.3
III	144.0	14.4	153.9	16.4	152.6	-20.5
IV	142.8	19.0	153.0	18.9	149.1	-23.4
2010. I	137.8	26.5	145.6	24.7	156.0	-3.8
II	158.5	16.5	168.2	16.8	159.8	-0.5
III	156.8	8.9	168.1	9.2	174.7	14.5
IV	160.9	12.7	174.6	14.1	167.8	12.5
2011. I	149.1	8.2	159.5	9.5	164.0	5.1
2010. 4	157.4	17.1	165.2	16.7	157.6	-2.4
5	157.3	16.7	168.5	18.8	157.8	-3.2
6	160.7	15.7	170.9	14.9	159.8	-0.5
7	165.7	14.0	178.1	18.1	168.3	-1.9
8	154.6	16.4	163.9	11.9	178.3	11.0
9	150.1	-2.3	162.4	-1.3	174.7	14.5
10	161.4	14.1	177.3	15.7	169.9	18.0
11	162.5	12.8	176.1	13.4	174.5	20.9
12	159.0	11.4	170.7	13.4	167.6	12.4
2011. 1	149.8	9.6	164.2	13.4	162.6	9.1
2	128.9	2.8	139.5	4.3	164.1	10.6
3	168.7	11.5	174.7	10.4	165.3	6.0
4	169.5	7.7	176.1	6.6	170.3	8.1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5) 대외거래

■ 수출

(백만달러, %)

	수출액		전기전자		기계류		화학제품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2001	3,452	-27.3	2,354	-35.6	187	5.6	372	-4.4
2002	4,020	16.5	2,881	22.4	217	16.0	371	-0.3
2003	4,733	17.7	3,480	20.8	243	12.0	458	23.5
2004	7,546	59.4	5,884	69.1	378	55.6	567	23.8
2005	5,662	-25.0	3,746	-36.3	568	50.3	561	-1.1
2006	8,055	42.3	5,744	53.3	787	38.6	629	12.1
2007	8,919	10.7	5,578	-2.9	1,645	109.0	705	12.1
2008	9,213	3.3	5,205	-6.7	1,959	19.1	818	16.0
2009	8,080	-12.3	4,510	-13.4	1,699	199.1	707	-13.6
2010	10,331	27.9	5,678	25.9	2,294	35.0	870	23.1
2009. II	2,248	-16.5	1,354	-12.4	441	-23.4	170	-26.4
III	2,149	-15.7	1,178	-18.6	470	-13.0	195	-12.9
IV	2,180	16.9	1,136	9.2	548	49.7	193	12.2
2010. I	2,175	42.2	1,136	38.4	546	64.5	192	40.1
II	2,515	11.9	1,327	-2.0	609	38.1	221	30.0
III	2,700	25.6	1,522	29.2	553	17.7	229	17.4
IV	2,940	34.9	1,696	49.3	585	6.8	227	17.6
2011. I	3,084	41.8	1,851	62.9	578	5.9	228	18.8
2010. 4	837	19.9	423	4.7	227	67.5	72	24.5
5	839	15.7	457	2.0	197	35.7	68	37.7
6	840	1.7	447	-11.1	185	15.7	82	29.1
7	913	13.7	489	5.8	210	27.9	82	19.2
8	868	40.0	493	43.6	171	27.5	72	34.8
9	919	26.6	540	44.7	172	-0.2	75	2.4
10	951	33.8	553	41.7	172	19.7	74	4.7
11	974	37.1	557	41.7	206	47.2	76	5.5
12	1,015	38.5	586	57.1	207	20.2	77	23.0
2011. 1	997	45.9	596	62.8	194	20.5	70	13.1
2	904	32.3	548	54.8	160	-6.8	69	20.4
3	1,181	46.0	707	71.0	223	4.4	87	20.3
4	1,161	38.7	680	60.7	225	-1.0	90	24.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입

(백만달러, %)

	수입액		전기전자		기계류		화학제품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동월(기)비
2001	2,677	-19.2	640	-21.7	406	-54.3	725	-4.4
2002	3,253	21.5	936	46.3	535	31.8	808	11.4
2003	3,591	10.4	1,204	28.6	551	3.0	850	5.2
2004	5,251	46.2	2,015	67.4	822	49.2	1,062	24.9
2005	5,495	4.6	1,630	-19.1	1,067	29.8	1,191	12.1
2006	6,889	25.4	1,854	13.7	1,384	29.7	1,556	30.6
2007	7,542	9.5	1,807	-2.5	1,082	-21.8	1,828	17.5
2008	8,299	10.0	1,944	7.6	1,142	5.5	1,765	-3.4
2009	4,969	-40.1	1,218	-37.3	506	-55.7	1,306	-26.0
2010	6,121	23.2	1,309	7.5	538	6.3	1,599	22.4
2009. II	1,290	-46.1	316	-40.8	182	-57.7	319	-30.3
III	1,298	-39.5	316	-34.0	115	-54.0	361	-27.5
IV	1,349	-20.8	285	-31.7	99	-37.7	371	-6.1
2010. I	1,350	33.8	285	1.8	99	13.8	370	61.6
II	1,616	25.3	319	0.9	171	-6.0	406	27.3
III	1,534	18.1	335	6.0	121	5.2	419	16.1
IV	1,621	20.2	370	29.8	147	48.5	401	8.1
2011. I	2,048	51.7	730	156.1	156	57.6	438	18.4
2010.4	551	21.2	108	10.7	52	-45.9	138	32.5
5	505	34.9	99	4.6	38	8.8	134	46.0
6	560	21.5	112	-8.7	81	58.9	135	9.5
7	549	23.1	119	4.2	52	-2.7	146	25.7
8	520	36.6	101	15.9	39	29.7	143	23.5
9	465	-1.6	115	-	30	-3.7	130	0.7
10	496	15.8	115	13.6	45	65.3	118	-7.0
11	546	18.6	124	27.0	49	2.8	132	-2.5
12	579	19.9	131	21.3	53	13.2	151	12.6
2011.1	622	54.9	199	109.1	38	10.1	138	39.4
2	559	31.3	171	103.0	45	40.4	135	11.1
3	867	65.9	360	239.4	73	124.1	165	9.0
4	754	36.9	233	115.0	61	18.2	167	2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무역수지

(백만달러, %)

	무역수지 금액	전기전자	기계류	화학제품
2001	775	1,714	-219	-353
2002	767	1,945	-318	-437
2003	1,142	2,276	-308	-392
2004	2,295	3,869	-444	-495
2005	167	2,116	-499	-630
2006	1,166	3,890	-597	-927
2007	1,377	3,771	563	-1,123
2008	914	3,261	817	-947
2009	3,111	3,292	1,193	-599
2010	4,210	4,369	1,756	-729
2009. II	958	1,038	259	-149
III	851	862	355	-166
IV	831	851	449	-178
2010. I	825	851	447	-178
II	899	1,008	438	-185
III	1,166	1,187	432	-190
IV	1,319	1,326	438	-174
2011. I	1,036	1,121	422	-210
2010.4	286	315	175	-66
5	334	358	159	-66
6	280	335	104	-53
7	364	370	158	-64
8	348	392	132	-71
9	454	425	142	-55
10	455	438	127	-44
11	428	433	157	-56
12	436	455	154	-74
2011.1	375	397	156	-68
2	345	377	115	-66
3	314	347	150	-78
4	407	447	164	-77

자료 : 한국무역협회

6) 기타

■ 충북 건축허가면적

(천㎡)

	합계	주거용	상업용	농림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교육/사회용	기타
2005	5,235.1	1,892.4	748.8	281.8	1,022.1	145.9	752.0	392.1
2006	5,272.8	1,883.6	1,210.5	298.7	1,024.7	29.6	369.6	456.1
2007	6,214.1	2,045.2	1,127.6	386.3	1,476.1	103.7	540.3	535.0
2008	5,043.1	1,092.5	1,283.2	286.5	1,272.3	170.7	490.1	447.9
2009	4,683.8	1,412.5	866.4	331.7	843.8	304.5	522.6	402.2
2010	4,747.7	1,189.6	761.9	590.9	1,315.7	267.3	372.7	249.6
2009. II	964.6	216.3	187.9	74.9	239.1	37.0	103.5	105.9
III	1,450.0	661.2	319.3	78.6	179.2	11.1	86.8	113.8
IV	1,258.8	302.9	200.4	137.4	235.6	145.2	145.5	91.9
2010. I	949.3	162.1	245.7	111.2	268.8	3.0	93.9	64.4
II	1,407.3	221.6	248.4	142.6	451.7	132.2	132.7	78.2
III	1,213.3	451.9	160.6	130.7	301.4	18.8	84.3	65.7
IV	1,145.5	314.6	187.6	161.4	278.3	67.6	69.6	66.3
2011. I	1,074.1	312.9	193.1	165.2	233.8	61.8	62.9	44.4
2010. 3	381.7	76.2	59.8	52.1	131.3	1.5	40.5	20.2
4	451.8	83.2	105.8	55.7	107.1	7.6	62.9	29.4
5	442.7	68.0	58.8	48.6	202.7	2.9	38.4	23.3
6	512.8	70.4	83.8	38.3	141.9	121.7	31.3	25.6
7	417.2	167.4	64.5	48.1	102.6	0.9	14.0	19.7
8	365.8	66.9	52.0	44.1	121.8	11.0	42.3	27.6
9	430.3	217.6	44.1	38.5	77.1	6.8	27.9	18.3
10	322.3	76.0	58.7	55.2	92.2	1.8	22.4	15.9
11	364.8	66.2	62.6	40.0	102.2	48.3	23.3	22.2
12	458.4	172.4	66.3	66.2	83.9	17.5	23.9	28.2
2011. 1	320.5	48.9	57.9	54.8	77.8	46.8	25.7	8.7
2	279.4	76.4	47.6	49.2	75.1	0.4	20.1	10.6
3	474.1	187.6	87.5	61.1	80.9	14.6	17.2	25.2

자료 : 충청북도

충북 동향 전망대(2011년 6월)

Chungbuk Trend Report / vol.1

등 록 번 호 충북바 02402호
발 행 일 2011. 6
발행·편집인 정 낙 형
발 행 주 관 충북발전연구원 동향분석센터
 센 터 장 정삼철
 정보자료팀장 김은형
 연 구 원 이익근
 연 구 원 김명규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
 (문화동 15번지)
전 화 043-220-1112(내용문의)
팩 스 043-220-1199
홈 페이지 www.cri.re.kr

충북 동향 전망대

Chungbuk
Trend Report



충북 발전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360-0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문화동 15)
Tel 043)220-1107 Fax 043)220-1199 www.cri.re.kr



ISSN 2234-0157